IT p/12
저출산 카메라시장 판도 바꿔

metro®
메트로 2014년 6월 26일 목요일 제3001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20

여름 '안방' 다시 여인천하로

71일만에 "학교 다녀 오겠습니다" 25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단원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세월호 희생 학생들의 부모님에게 "학교 다녀 오겠습니다"고 인사를 드리며 71일만에 등교하고 있다. 학생 대표는 "이제 사고 이전으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평범한 18살 소년 소녀로 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꿈틀대는 중국 경제… 한국 '훈풍'

미니 경기부양책 약발 먹혀 반년 만에 '확장세 진입'

글로벌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중국'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지표가 하나둘씩 개선되면서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국경제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호전되는 모습이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6월 HSBC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는 50.8로 집계됐다. 6월 지수는 전달의 49.4와 시장 전망치 49.7 모두를 웃돈 것이다.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50에 못 미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중국의 경기가 확장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12월(50.5)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중국의 5월 산업생산도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해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같은 달 소매 판매 역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5% 증가했다.

문정희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우호적인 대외 환경과 내부 정책을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흐름이 더욱 가시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승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3%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이처럼 중국 경기가 5월 들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데에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미니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컸다. 중국 정부는 올해 4월 이후 최근까지 9번에 걸쳐 미시적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유신익 HMC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부채 관리나 유동성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중국 정부의 관리와 정책 시행으로 최악의 국면은 벗어나고 있다"며 "중기적 관점에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對中 수출비중 25%로 우리경제 버팀목 역할

전기·전자·화학등 수혜 글로벌 자금 유입 기대

◆ 중국 수출 매년 10%이상 증가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회복세는 국내 경기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는 최대 시장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대 중국 수출은 매년 10% 이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국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나아가 글로벌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최근 2년간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보면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때 국내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 연구원은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 한국의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화학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현주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철강, 건설, 운송 뿐만 아니라 증권업종의 추가 반등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의 회복세가 아직 반등을 확신할 수준은 아니라는 보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마주옥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경기둔화나 수입감소 등을 감안할 때 경기 반등을 확신할 수준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부동산 시장이 경기 회복세의 걸림돌로 꼽힌다. 중국 대도시 집값은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며 부동산 시장 침체를 유발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국 경제가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미진한 측면이 있다"면서 "한층 강화된 부양책 시행이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개발제한 구역 건물 용도변경 대폭확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골프연습장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최초 지정된 이후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0여 종에서 90여 종으로 대폭 확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용도변경 대상 확대로 기존건축물들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없도록 추가적인 건축물의 면적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농업용창고,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신축이 허용되는 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용도변경 확대 허용)은 건축물 허가 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가 우려되어 이번 제도 개선에서 제외했다.

/김두탁기자 kimdt@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간송문화전' 보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가 있는 날'행사의 하나로 25일 오후 서울 동대문DDP에서 열리고 있는 '간송문화전-문화로 나라를 지키다'를 방문,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을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문 표절·고액 수임 등 쟁점

2기 내각 후보별 인사청문회 공방 예고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부총리·장관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도착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 채비에 들어갔다.

의원들은 후보자들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 인사청문회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제자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 등이 핵심 쟁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 등은 김 후보자의 논문 중 현재까지 윤리성 시비가 불거진 논문은 모두 11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 사건인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의 '차떼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정치특보로 일하며 이인제 의원 측에 5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납부했다.

또 사돈이 경영하는 대기업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고액의 보수를 받은 점과 논문 중복 게재 의혹 등이 구설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또 지난 3월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선임돼 한달도 채 근무하지 않았지만 850만원을 받았다. 2011년 3월부터 3년간은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로 1억4580만원을 받았다. 올해는 단 두번만 회의에 참석하고도 2190만원을 받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거꾸로 가는 수입 화장품값

기자 수첩

정 혜 인 <생활레저부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 1020원 선이 무너지는 등 원화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고가 수입 화장품 브랜드들은 오히려 가격 인상에 나서 비난을 받고 있다. 올해 초 샤넬·베네피트가 가격을 올렸고 켄조·지방시·펜디·마크 제이콥스 등 10여 개 향수 브랜드도 면세점 판매가를 인상했다. 지난 3월 이미 가격을 올렸던 디올은 다음달 1일부터 또 다른 일부 제품의 가격을 올릴 계획이다. 클라란스와 SK-II도 7월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한다.

이처럼 많은 브랜드들이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격 인상 행진에 너도나도 달려들고 있다. 업체에선 가격을 올릴 때마다 '글로벌 본사 차원의 가격 조정 방침' 때문이라며 설명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급급해 한다. 게다가 본사 방침이라는 설명만으로는 한국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설명할 수 없다.

상당수의 수입 화장품 브랜드들은 매출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다. 국내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서 소비자가 오히려 수입 브랜드보다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업체들은 매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환율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은 비싸도 명품을 선호한다고 여겨 가격을 올려도 된다는 '꼼수'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즈음 국내 소비자들은 합리적이다. '비싸도 명품이니까'라는 인식보다는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품 가격도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소비자들은 글로벌 화장품 업체의 '봉'이 아니다. 매출 부진을 만회하고 싶다면 뼈를 깎는 자구책과 유통경로 정비 등을 통해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당 세월호 특위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당 위원들이 25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에 정박해 있는 세월호 닮은꼴 선박 '오하마나호'의 조타실에서 박진환 선장으로 부터 '퇴선신호' 비상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과제 추진 중 과실은 정상참작

공무원 징계 시행규칙 개정

안전행정부는 25일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다 과실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정상참작'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행부가 26일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징계의결 요구권자(기관장)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해당 과실이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실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징계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계위원회가 정상을 참작하는 사유에도 '국정과제와 규제개혁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성'이 추가된다.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 추진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고의나 중과실 또는 금품 관련 비위는 정상참작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재산등록을 불성실하게 하더라도 제재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불성실 재산 등록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공무원에게는 '공적(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여론수렴을 한 후 8월부터 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jhj@

뉴스&뉴스

이혜훈 울산 남구을 재보선 출마 선언

●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이 25일 7·30 울산 남구을 재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 국회의원,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을 지내며 지난 10년간 배우고 익힌 모든 지식과 경험을 울산 발전에 쏟아 붓기 위해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새 정무비서관에 신동철

● 박근혜 대통령이 공석인 정무수석실 정무비서관에 신동철 국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신 비서관이 어제 정무비서관에 임명된 것으로 안다"며 "신 비서관이 자리를 옮기면서 후임 국민소통비서관은 현재 찾고 있다"고 전했다.

북 인민무력부장 1년만에 현영철로

● 북한이 우리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장을 1년여 만에 현영철로 교체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1949년생으로 알려진 현영철은 백두산 서쪽 북중 국경지역을 담당하는 8군단장 출신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日 고노담화 흔들기' 美에 우려 표명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

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차관급 전략대화를 열고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에 따른 대응문제 등을 협의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윌리엄 번즈 부장관과 만나 이번 검증결과 발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우려를 전달하고 미국 측과 의견을 교환했다.

조 차관은 회동을 마친 뒤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결과를 포함해 일본정부의 과거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번즈 부장관은 기존 국무부의 입장표명대로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담화를 계승하는 것이 이웃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중요한 장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과 번즈 부장관은 또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과 억류자 문제에 대한 대응방향을 조율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양자현안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이 차관급 전략대화를 가진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김민준기자 mjkim@

'짝퉁 표백제' 유통 공장을 차려놓고 직접 제조한 표백제를 유명회사 제품으로 둔갑시켜 대량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5일 업계 1위 유명 제품으로 둔갑한 '야매' 표백제가 전국으로 유통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임병장 메모 공개 안한다

희생자 유족 뜻… 22사단 GOP 두달 전 소초장 보직 해임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의 원래 소초장이 사건 발생 2개월여 전인 지난 4월 보직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사고가 난 소초의 소초장(소위)이 4월 중순 보직 해임됐다"며 "감시 장비 분실과 소초 시설물 훼손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임 병장이 근무한 소초에서 소초장이 해임되는 등 이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번 총기난사 사건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소초장 해임 등과 이번 총기난사 사건이 연관성이 있는지는 앞으로 수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군은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GOP에 대해 부대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치유를 위해 국군수도병원 민간 의사 1명과 정신과 군의관 1명, 사회복지사 1명 등 5명의 정신건강팀을 투입했다. 특히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군 특별정밀진단을 실시해 보호관심병사를 재판단하기로 했다.

총기난사범인 임 병장은 전날 오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했으며 스스로 식사하고 대화도 가능한 상태다. 군 당국은 임 병장의 상태가 호전될 경우 국군강릉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임 병장을 상대로 한 조사도 이송 후 본격화할 방침이다.

다만 임 병장이 자살시도 직전 작성한 A4용지 3분의1 분량의 '메모'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희생자 유족이 메모 공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희생 장병에 대한 영결식을 27일 오전 8시 국군수도병원에서 22사단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제 연예인 덜미

단기간 체중 늘린 보디빌더도

'헬스보충제'를 먹고 단기간에 체중을 늘려 보충역 판정을 받은 보디빌더와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이 면제된 연예인 등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25일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보디빌딩 선수 4명과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 2명 등을 적발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한 보디빌더 4명은 인터넷을 통해 신장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들은 고등학교 재학 중 마지막 보디빌딩 대회 후 운동을 중단하고 '헬스보충제'를 구입해 먹으면서 하루에 1만Kcal 이상 음식을 섭취해 체중을 늘렸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또 연예인 B(29)씨는 정신질환을 앓은 것처럼 의사를 속인 뒤 31일간 입원 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2010년 케이블TV에 출연하고 음악 밴드 공연기획자로 활동한 C(28)씨도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김민준기자

관악, '청소년 홈스테이' 실시

서울시 관악구는 청소년들의 외국 문화 현장 체험과 외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성적·면접 심사를 통해 영국은 고등학생 5명, 중국은 중학생 6명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동대문, 힐링 체험 프로그램

서울시 동대문구는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음건강·치유밥상'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8월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마포, '사랑의 삼계탕' 행사

서울시 마포구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마포지구협의회 주최로 26일 '어르신 행복 나눔 잔치 사랑의 삼계탕' 행사를 갖는다.

행사는 오전 11시 이룸웨딩컨벤션(마포대로 783)에서 진행되며 어르신 200여 명이 참석한다.

서울시민 행복점수 72.2점 'C학점'

연령 낮을수록 더 행복

서울시민의 행복점수는 72.2점(100점 만점)으로 'C학점'을 기록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점수는 높았다.

서울시는 25일 217개 지표로 시민의 사회·생활상을 파악한 '2013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3년 시작된 이 조사는 11회째로, 시는 지난해 처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란 질문을 던졌다. 그 결과 행복점수는 72.2점이었다. 10대가 75.5점으로 가장 높았고, 20대(75.1점) 30대(74.1점) 40대(73.4점) 50대(71.9점) 60세이상(66.5점) 등 연령이 낮을수록 행복점수가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74.5점)이 가장 높은 행복감을 보였고, 기혼(72.7점) 이혼·별거(65.0점) 사별(61.5점) 순이었다.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73.9점)이 그렇지 않은 사람(71.3점)보다 행복감이 높았다.

서울 보통가구는 48세(가구주 평균나이) 전문대졸 학력의 남자가 장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300~400만원(25.1%), 200~300만원(19.7%), 500만원이상(19.4%)의 분포를 보였다. /김민준기자

공무원 합격자 노령화

9급 40%가 30세 이상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10명 중 4명은 만 3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총 2150명을 뽑는 올해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3159명의 수험번호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26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9.1세로, 지난해보다 0.2세 상승했다. 연령대로 나누면 23~27세가 42.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28~32세가 32.2%로 뒤를 이었다.

합격자 중 30세 이상이 38.6%를 차지했다. 50세 이상 합격자 12명 가운데 최고령자의 연령은 55세(59년생)다. /윤다혜기자 ydh@

청소년 교육전문가로 제2인생 살까

내 적성을 찾아라! 방송통신대 Q&A ① 청소년교육과

Q 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는 어떻게 개설되었나?

A 교육학과 내 청소년교육 관련 커리큘럼을 토대로 2009년도부터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분리·개설된 학과이다. 이후 디지털·글로벌·다문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지도·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전문가들을 길러내고 있다. 등록금은 35만원 내외 이며, 다양한 장학금이 있다.

Q 청소년교육과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

A 청소년교육과의 교육내용은 교육기초영역, 청소년이해영역, 청소년교육내용영역, 청소년지도자교육영역, 청소년부모교육영역, 청소년복지 영역의 관련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Q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되나?

A 졸업 후에는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으며 청소년시설과 복지·상담시설, 방과후 교실, 대안학교 등에서 청소년교육, 청소년복지와 상담, 레크리에이션과 체험활동, 학습과 진로지도 등의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 또 청소년 관련 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교육대학원 등으로 진학하여 심도있는 학습을 이어갈 수 있다.

문의 02-3668-4446 /윤다혜기자

한국방송통신대 청소년교육과 '상록수스터디'가 정기산행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급여제한자(체납) 관련 Q&A

국민건강보험 서울지역본부

Q1 건강보험 무자격자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일반진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무자격자는 진료일자를 포함하여건강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한 후에 진료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여 자격을 확인하면 요양기관과 진료비 정산이 가능합니다.

Q2 보험료 체납(6월 이상)으로 우선급여제한대상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한 경우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체납보험료를 진료사실 통지를 받기 전에 완납하였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납부기한)내 완납한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공단부담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체납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매월 일정금액씩 납부하는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윤다혜기자 ydh@

음주운전 판결 '오락가락'

취기 오르는 시점 중요 vs 운전자 행동·정황 등 고려

음주운전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더라도 차를 몬 시점이 취기가 오르는 상태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는 반면 차를 몬 당시 행동이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부근에서 지인을 만나 소주 4잔을 마신 뒤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음주 단속에 걸린 윤모(44)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윤씨는 호흡을 통한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기준에 딱 걸리는 0.05%가 나왔다. 윤씨의 재측정 요구로 이뤄진 채혈 검사에서는 농도가 0.094%로 훌쩍 뛰었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윤씨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통상 술을 마시면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다다르는 '상승기'를 거친 후 시간당 0.0008%~0.03%씩 농도가 감소하는 패턴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윤씨의 첫 혈중알코올농도가 0.05%가 나온 때는 차를 멈추고 7분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그 뒤 30분이 지난 뒤의 채혈 측정에서는 0.092%로 상승해 있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재판부는 윤씨가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5일 비슷한 사례지만 대법은 전혀 다른 판결을 했다.

2012년 9월 22일 오전 8시30분께 대구 시내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기소된 김모(42)씨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이 오전 8시10분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 기준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는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단속 당시 운전자의 행동,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오늘 예비지원자 위한 NGO 특강

경희사이버대 NGO학과가 26일 오후 6시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104호에서 2014학년도 2학기 예비 지원자를 위한 NGO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희사이버대 NGO 학과의 2014 목요 특강의 일환으로 NGO학과를 지원하려는 예비 지원자들을 초청해 입학 상담과 특강을 통한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경북대병원 파업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27일 하루 동안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을 벌인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5일 "한국 병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윤보다는 생명, 외형적 성장보다는 인력 확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병원들은 외형 확장에만 몰두해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27일 필수인력을 제외한 간호·간호보조·의료기사·일반직 등 400~500명의 인력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다혜기자

“공무원 반성문 써드립니다”

中 ‘자아비판’ 유행하자 대필업 인기… 추가비용 내면 당일 완성

중국에서 시진핑(習近平) 정부 출범 이후 공산당의 ‘자아비판’이 한층 강화됐다. 이에 관리들을 위해 ‘반성문’을 대신 써주는 대필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5일 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민중에 가까이 다가가는 ‘군중 노선’을 강조하면서 ‘민주생활회’라는 집단토론회를 통해 당 간부들 간 상호비판과 자아비판을 독려하고 있다. 시 주석 자신도 지난해 9월 허베이성에서 열린 민주생활회에 참석했다.

민주생활회에 참석하는 당 간부들은 동료 앞에서 자신의 일이나 생활에서 잘못된 점을 반성하기 위해 최소 3000~5000자에서 길게는 1만 자 이상의 ‘자아비판서’를 써야 한다.

새로운 ‘먹잇감’이 등장하자 대필작가들은 하룻밤 안에 비판서를 작성할 수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섰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에서 ‘당원 자료 대필’이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민주생활회 자료를 대필해 준다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은 한 명이 ‘1인 기업’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여러 명의 대필작가를 모집해 팀을 꾸리기도 한다.

비판서 작성에는 대개 주문 후 2~3일이 걸리지만 추가 비용을 내면 ‘당일 완성 서비스’도 가능하다.

대필 비용은 비판서 1건당 100위안, 1000자당 80위안 등 다양하다. 어떤 대필업체는 5위안(약 810원)만 내면 의뢰자의 직급과 회사 성격에 맞춰 쓸 수 있는 견본 6개를 제공한다. 장쑤성에서 영업하는 한 대필작가는 지난달 51건의 비판서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자아비판서가 대필 작가를 통해 팔리는 지경에 이르자 일각에서는 관리들의 자아비판이 ‘정치쇼’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백악관 골프광’ 골프선수 초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지난해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 승리팀인 미국팀 선수들을 백악관으로 초청, 연설을 하기에 앞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고문단 이라크 활동 시작

“전투 임무 안 맡아”… UN “이달 사망자 1000명 넘어”

이라크 정부군의 병력 모집과 훈련 등의 지원을 위해 파견된 미군 고문단이 24일(현지시간) 활동을 시작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 고문단이 전투 임무를 맡지는 않는다”며 “주요 임무는 이라크군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라크 서부와 북부를 점령한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에 의해 형세가 급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약 40명으로 이뤄진 두 팀이 활동을 시작했다”며 “2~3주 안에 업무 결과가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그다드에 합동작전센터를 설립할 90명이 추가로 도착했고 또다른 50명이 수일 내 배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라크 정부군은 전략 요충지인 안바르주의 후세이바 지역과 바드다드 북부 바이지의 정유공장을 반군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공습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38명이 숨졌다.

이와 관련, 유엔은 이라크 내 사망자가 이달에만 1000명을 넘었다며 대부분 민간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압둘라 엘바드리 사무총장은 “이라크 사태로 인한 석유공급 부족은 없다”며 “시장 가격 상승은 투기 거래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기후변화로 美 해양자산 2050년까지 100조원 손실

미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2050년까지 100조원에 달하는 자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이 이끄는 ‘위험 사업 프로젝트’는 24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해안가에서 2050년까지 최소 660억 달러(약 67조원), 최대 1060억 달러(약 107조원) 규모의 자산이 물에 잠기게 된다. 2100년에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자산 손실 규모가 5070억 달러(51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예상 피해는 남부 지역에서 가장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남동부의 경우 매년 35도를 넘는 날이 현재 8일 정도지만 2050년에는 최대 60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로 인해 매년 1만1000명에서 3만6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위험 사업 프로젝트는 미국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 요인을 고려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도록 권고하는 차원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선미기자

섹시한데 착하기까지?

metro Mexico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섹시한 남성을 뽑는 ‘미스터 월드’ 대회가 최근 영국에서 막을 내렸다. 이 대회에서 북유럽의 꽃미남을 제치고 당당히 3위를 차지한 멕시코 청년이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짙은 눈썹이 매력적인 호세 파블로.

그는 “멕시코 대표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대신 대회에 나갔다. 운명의 장난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파블로는 멕시코 연예계를 종횡무진 누비며 경력을 쌓아왔다. 모델로 데뷔해서 연기자로 변신, 텔레비전 드라마를 섭렵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의 주된 관심사는 영화였다. “이번 수상이 저에게 큰 힘을 줄 것 같아요. 앞으로 멕시코에서 영화를 만들고, 단편영화에도 도전할 생각입니다.”

호세는 이번 수상으로 높아진 인기를 자원봉사에도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

그는 “남을 돕는 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 동물 보호에도 관심이 많다”며 “최근 멕시코시티에서 서커스단 동물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봉사 활동에 참여할 사람은 트위터를 통해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다니엘라 페레스 기자·정리=조선미기자

리우데자네이루 암표상 극성

metro Brazil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경기장이 암표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브라질 경찰은 암표 문제를 이미 예측하고 경찰 병력을 보충해 배치했으나 이 마저 암표상들의 장삿속을 막진 못했다. 단속 첫날이었던 이날만 경찰은 32명의 암표상을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으며 대부분은 외국인으로 구성돼 있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불법 매매 외에도 티켓 절도로 경기를 관람하려는 좀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경찰에는 이 날만 32건의 입장권 절도 사건이 접수돼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했다.

경기를 관람하려 했던 한 남성은 “마라카낭 역에 도착해서야 내 친구의 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됐다. 아마 전철을 타고 오던 중 도난을 당한 것 같다”며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해결 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market index <25일>

코스피 1981.77 (-12.58)

코스닥 527.26 (-2.23)

금리(국고채 3년) 2.69 (+0.01)

환율(원·달러) 1020.00 (+2.50)

뉴스&뉴스

신용카드 사용액 첫 감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4월 중 개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승인액은 지난해 동월보다 1.3% 감소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중 국내 개인 신용카드 승인액은 하루 평균 9768억원으로 지난해 4월(9892억원)보다 124억원(1.3%) 줄었다. 한은이 지난 2009년부터 편제한 이 통계가 전년 동월 대비로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유류판매가 17.5% 줄어든 것을 비롯해 서점(-17.2%), 국산 신차(-15.4%), 할인점(-10.3%), 유흥 및 사치업(-10.2%) 등이 두자릿수의 감소율을 보였다. /김민지기자

네이버 학점계산기 인기

●전국 대부분 대학의 기말고사가 끝나가는 가운데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점계산기'가 관심을 끌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학점 계산기'는 과목별로 학점 평균값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컨대 '4.3점 만점'과 '4.5점 만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과목별 점수와 학점을 입력하기만 하면 평균 평점을 계산할 수 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연금복권520 제156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2조 196123
		5조 608164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465634
4등	100만원	각조 94735
5등	2만원	각조 491
6등	2000원	각조 10, 79
7등	1000원	각조 9, 7

출처 : 나눔로또 공식홈페이지(www.nlotto.co.kr)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이통3사, 팬택 살리기 나설까

출자전환 동참 여부 관심… 내달 4일까지 결정

팬택의 생사 여부가 이동통신 3사의 손에 달렸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24일 팬택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기존에 제시된 지원 방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팬택 경영정상화 지원 방안은 채권단이 30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팬택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판매장려금 등 채권이 있는 이통3사도 1800억원 규모로 출자전환에 동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2018년 말까지 채권단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며 이자율도 담보채권은 2%, 무담보채권 1%, 기존 주식 10대 1 무상감자도 계획 중이다.

결국 핵심은 이통3사의 출자전환 동참 여부에 달린 셈이다. 이를 놓고 이통3사는 심각한 고민에 들어갔다. 실제 팬택의 워크아웃 지속 결정시한이 다음달 4일이기 때문에 이통3사도 서둘러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만일 이번 개선방안이 무산될 경우 팬택은 법정관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팬택이 파산할 경우 이통3사의 팬택 재고 휴대전화 물량 처분도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 파산 시 향후 팬택 단말기에 대한 애프터서비스(AS) 지원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고 처리도 그만큼 힘들어진다. 현재 이통3사가 보유한 팬택 재고 휴대전화 물량은 70만대 수준. 개별 단말기 평균 출고가를 70만원 기준으로 할때 5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팬택 매출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을 지속 검토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내부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내에 결론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수십만대의 재고 물량 처리 외에도 팬택을 제외하면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LG전자 두곳으로 재편된다. 따라서 단말기 수급에 있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통사가 출자전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강한 상황이다.

팬택측은 기업회생을 위해 정부의 다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 앞서 박창진 팬택 부사장은 2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처한 기업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며 "경영난으로 워크아웃 같은 특수상황에 처한 기업은 보조금 상한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배려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도 팬택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신규 자금지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느 때보다 이통3사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는 눈이 많다.

과연 팬택 살리기를 두고 이통3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영화 트랜스포머가 현실로 한국지엠은 영화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에 카마로(Camaro), 콜벳 스팅레이(Corvette Stingray), 말리부 등 쉐보레의 제품들이 등장한다고 25일 전했다. 한국지엠은 이번 영화에 출연한 쉐보레 카마로, 트랙스, 말리부 등과 대형 오토봇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내 '트랜스포머 존'에 전시하고,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한국지엠 제공

소비자심리 상승 전환
세월호 이전엔 못 미쳐

소비자 심리가 이달 들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은 세월호 사고 발생 전의 심리 상태로 완전히 복귀하지는 못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7로 5월(105)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CSI는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전월(108)보다 3포인트나 하락,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수는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아직은 세월호 참사 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올해 1월에는 109였고, 2~4월에는 각각 108이었다. 특히 CSI를 구성하는 세부항목 가운데 '현재 경기판단'은 이달 79로 4월의 91에 견줘 12포인트나 낮았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의 경기판단을 뜻하는 이 항목은 5월의 76보다는 높아졌다.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경기전망(94→98)도 지난달보다는 4포인트 올랐지만, 세월호 여파가 반영되기 직전인 4월(101)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6개월 뒤의 소비지출전망(108→110), 생활형편전망(99→101), 가계수입전망(101→102)은 세월호 참사 전 수준을 회복했다. 소비지출전망을 품목별로 보면 여행비(90→93), 의류비(102→103), 내구재(94→95)가 상승했으며 교육비(107→106)와 의료·보건비(114→113), 교통·통신비(111→110)는 하락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제4이통 탄생 딱 한걸음 남았다

KMI,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 통과… 본심사 거쳐 7월 결론

'제4이동통신'에 도전장을 내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업권 획득을 위한 본심사만 남겨놓게 됐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용(LTE-TDD)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KMI에 대해 할당공고사항 부합 여부, 무선국 개설과 사업허가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에 대한 할당신청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적격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할당신청 적격심사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에서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면 입찰설명회 등을 거쳐 7월말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4월 2.5G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LTE-TDD) 또는 와이브로(Wibro)용으로 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결정, 지난달 2일 할당공고를 거쳐 이달 2일까지 할당신청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KMI가 2.5G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단독으로 신청했다.

KMI 관계자는 "LTE-TDD를 기반으로 한 KMI가 제4이통으로 출범하면 향후 관련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최근 이통3사간 보조금 경쟁으로 통신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KMI는 보조금 없이도 저렴한 요금과 질 높은 서비스로 대처할 수 있는 만큼 박근혜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MI는 제4이통 승인을 받아 공식 출범할 경우 내년 말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가 음성통화 없이 LTE 데이터만을 무제한 이용할 경우 월 기본료 3만원, 음성통화를 같이 이용하는 경우 월 기본료 3만6000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음성통화만을 이용할 경우에도 월 기본료 8000원으로 음성통화 1초당 1.4원이 든다. /이재영기자 ljy0403@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In Collaboration with RobecoSAM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선정 – 동부화재

운전중 교통상해사망까지 보장하는 보험 –

생명보험이에요? 운전자보험이에요?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면 얼마나 보장하나요?

운전중 교통상해사망시
3억원 일시금 지급
(특약 가입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면 얼마나 보장하나요?

자동차 부상치료비
14등급(**5만원**)~1등급(**400만원**)**지급**
(특약 가입시)

매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지는 않나요?

갱신·할증없이
월 11,990원
(20년 만기 20년 납, 월납, 자가용운전자 기준)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운전자종합보험 1404

● 보험료 예시

[20년만기 20년납, 월납, 자가용운전자기준, 단위 : 원]

구분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					
				30세남	30세여	40세남	40세여	50세남	50세여
보통약관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보통약관)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1,000만원	102	71	102	71	102	71
특별약관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일시금으로 보험가입금액 지급	30,000만원	4,350	2,190	4,350	2,190	4,350	2,190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만원	554	704	554	704	554	704
	자동차부상치료비 II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별 5만 ~ 400만원 지급	400만원	1,656	734	1,656	734	1,656	734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피해자 사망, 피해자 중상해, 중대 법규위반사고)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	3,000만원	2,275	2,274	2,275	2,274	2,275	2,274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실손)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 또는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만원	117	117	117	117	117	117
	벌금(실손)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000만원	293	293	293	293	293	293
보장보험료 합계				9,347	6,383	9,347	6,383	9,347	6,383
적립보험료 합계				2,643	5,607	2,643	5,607	2,643	5,607
납입보험료 합계				11,990	11,990	11,990	11,990	11,990	11,990

예시보험료는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벌금(실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비용담보는 음주,무면허 운전중 사고나 뺑소니, 영업용/경기용 차량 운전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6종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6종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6종건설기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

[20년만기, 20년납, 상해1급, 남자 40세, 자가용운전자, 월납11,990원, 단위 : 원, %]

경과연수	납입보험료	예상 해지환급금(률)					
		최저보증이율		표준이율		표준이율 × 1.2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143,880	–	0.0%	–	0.0%	–	0.0%
3년	431,640	45,230	10.5%	47,250	10.9%	47,450	11.0%
5년	719,400	100,310	13.9%	106,040	14.7%	106,630	14.8%
7년	1,007,160	156,990	15.6%	168,550	16.7%	169,750	16.9%
10년	1,438,800	246,050	17.1%	271,290	18.9%	273,970	19.0%
16년	2,302,080	436,460	19.0%	511,380	22.2%	519,690	22.6%
20년	2,887,600	573,050	19.9%	701,170	24.4%	715,780	24.9%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금 및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1.5%), 「표준이율(3.5%)와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및 「표준이율×1.2와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1304(월변동금리, 2014년 04월 현재 3.7%)입니다. • 실제 해지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인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304)을 적용하여 산출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하므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었기에 해지환급률에 납입보험료를 곱한 금액과 기재된 환급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80-249-7000

• 계약자는 청약을 한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철회가능하며 계약 청약 이후 보험약관 미전달, 청약 미녹취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 등 비례보상 담보의 경우 이전에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4-0614호(2014.3.31)〉

최대 반값 '땡스 위크' 롯데마트가 다음달 2일까지 주요 생필품을 최대 반값에 판매하는 '땡스 위크'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전했다. 이날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보양식으로 인기가 있는 통사골과 통우족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금리 속 '수시입출금 통장' 인기

전문가들 "예치 금액에 따라 꼼꼼히 따져봐야"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수시입출금식 통장'이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 받고 있다.

단기간 돈을 넣어두더라도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높은 금리를 받으면서 수시로 자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점도 메리트다. 각 상품마다 금리를 제공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른 만큼,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는 게 좋다.

우선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 거래를 많이 한다면, 온라인 전용 상품이 유리하다.

KDB산업은행의 'KDB다이렉트 입출금 통장'은 단기 자금 운용에 적합한 온라인 전용 상품이다. 별다른 조건 없이 연 2.25%의 금리를 제공하면서도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찾아도 수수료가 공짜라는 것이 장점이다. 은행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한 후, 고객이 직접 지점을 찾아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북은행의 'JB 다이렉트 입출금 통장'도 연 2.5% 금리를 준다. 전 은행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도 무료다. 10억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고, 모든 금액에 동일한 금리를 제공한다.

◆20~30대 사회초년생이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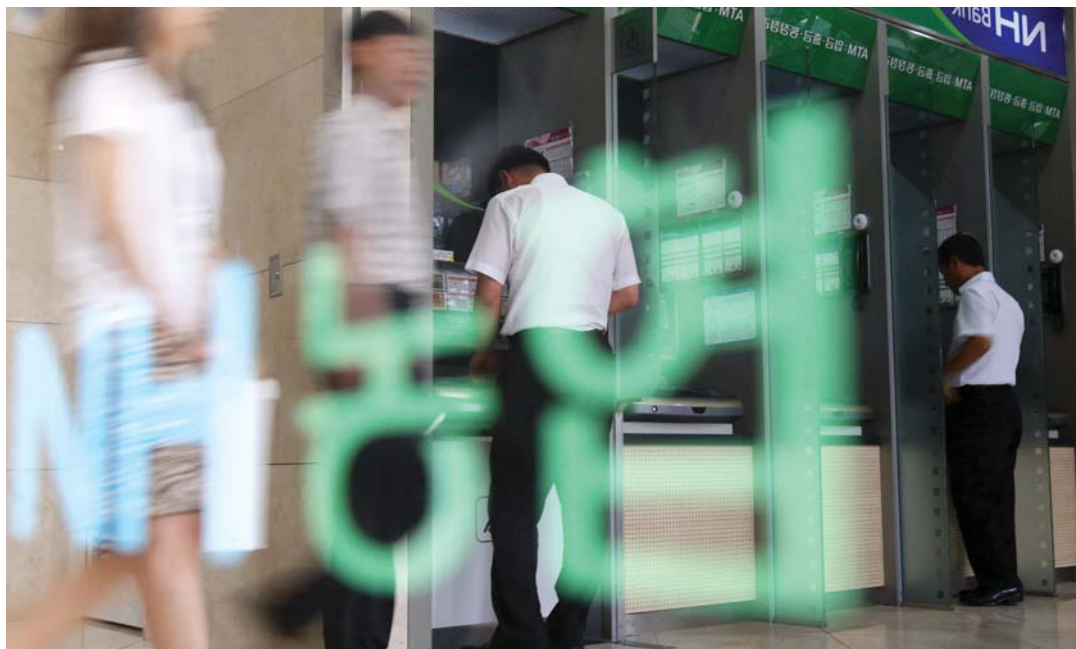
종잣돈 마련이 목적인 20~30대의 사회초년생이라면 200만원 이하에도 연 2%대의 높은 금리 혜택을 주고,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노려볼만하다.

국민은행의 'KB 스타트 통장'은 사회 초년생들의 월급통장 잔액이 평균 100만원 안팎이라는 점에 착안해 설계, 100만원 이하의 잔고에 대해서는 연 2.5% 금리를 제공한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0.1%의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잔액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 18~35세 고객만 가입 가능하다.

외환은행의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은 만 18~35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결산기 평균 잔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연 2.5%,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일 경우 연 1.0%, 200만원 이상일 경우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일정 급여이체 실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의 'IBK급여통장'은 50만원 이하의 자투리 소액예금에도 연 1.95%의 금리가 적용된다. 직전 3개월간 2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월 50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 ATM과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정기예금에 맞먹는 2~3%대 금리를 보장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며 "다만 자금 운용 목적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금융당국 농협중앙회 검사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은행과 카드사 관련 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수습이 일단락되면서 이번 주부터 농협중앙회의 상호금융에 대한 부문 검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중앙회의 개인 정보 관리 실태, 회원 조합 지도·관리, 전산 내부통제, 자산운용 적정성 등이 점검 대상이다. 오는 9월에는 금감원 정보통신(IT) 전담 검사반이 파견돼 농협중앙회의 전산 운영 부실 가능성을 정밀 점검한다. /연합뉴스

코넥스 프리보드 전철 밟나

개장 1년 앞두고 거래 크게 줄어

다음 달 1일 첫 돌을 맞는 중소·벤처기업 전용 코넥스 시장의 추가 활성화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거래 부진으로 '프리보드'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높이고 상장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알릴 창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의 하루평균 거래량은 지난 달 2만5887로 지난해 개장 당시 7만1030에서 3분의1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하루평균 거래대금 역시 지난 달 1억9400만원으로 개장 당시 4억3800만원에서 올해 1월 2억9000만원으로 줄고서 현재 반토막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반투자자의 코넥스 투자가 쉽도록 시장의 문을 더 열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행 코넥스 규정상 펀드·연기금 등의 전문투자자(기관)와 벤처캐피탈이 아닌 개인투자자는 3억원 이상의 증권예탁금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조건을 대폭 완화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시장 선물투자의 증거금이 1계약당 1500만원에 불과한데,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코넥스 시장의 진입 조건이 수십 배 더 높은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코넥스 기업의 투자 정보가 턱 없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정 자문인이 상장 후 기업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일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넥스 기업의 수는 개장 초 21곳에서 현재 53곳으로 늘어났다. 코넥스에 입성하는 기업이 늘면서 상장사를 발굴해 심사, 공시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정 자문인도 개장 초 11곳에서 현재 16곳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개장 후 현재까지 코넥스 지정자문인이 기업분석보고서를 내놓은 상장사는 28곳으로 전체 53곳의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올 들어서는 7개 보고서만 나왔다.

코넥스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상장사의 재무제표와 신제품 설명, 경영자 인터뷰 등 기업설명활동(IR) 정보를 강화한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정자문인들이 기업 상장 후 한 차례 보고서를 내놓은 뒤에는 좀처럼 추가 리서치 활동을 하려하지 않는다"며 "코넥스 상장사와 투자자간 지속적인 소통 창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삼성SDS, 삼성電 네트워크부 합병설 일축

삼성SDS가 삼성전자의 네트워크사업부 합병설을 일축했다.

전동수(사진) 삼성SDS 사장은 2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사장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합병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최근 업계에선 삼성SDS가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를 흡수해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사업다각화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앞서 삼성SDS는 지난달 초 연내 상장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상장 6개월 전에는 대주주 변동이나 인수합병(M&A) 건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할 때 이번 합병설 역시 루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영기자 ljy0403@

건강하면 보험료 할인 받는다

금감원 가입자 안내 강화

오는 9월부터 건강한 고객이 보험 가입 시 손쉽게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 약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 가입 실적이 저조해 건강 진단 절차 간소화와 가입자 안내 강화를 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15개 생명보험사의 건강 특약 적용 대상은 134개 보험 상품에 1546만건이다. 이 가운데 78만건만 가입된 상태다.

건강 특약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대상이다. 건강 상태 판별을 위해 검사를 해 문제가 없으면 남성은 평균 8.2%, 여성은 2.6%의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

금감원은 건강 특약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라 병원 검진을 위탁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 검진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 또는 다른 보험사 건강검진 결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검진 신청과 보험 청약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통합하고 인터넷을 통해 건강검진 신청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보험 가입 설계서에 건강 상태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 안내하도록 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설계사로부터 건강 특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들었는지가 점검되며, 보험사는 해피콜을 통해 건강 특약의 가입자 안내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 특약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반영해 적용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월부터 건강 특약 관련 개선이 이뤄진다"면서 "개선 사항에 대해선 회사별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5G 기술 개발·아이리버 인수

SK텔레콤 공격 경영 행보 눈길 수익모델·경쟁구도 변화 예상

세계 최초로 광대역 LTE-A를 상용화한 SK텔레콤이 공격적인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차세대 통신망 기술을 노키아와 공동 개발하거나 300억원 규모의 인수 합병을 추진하며 확고한 업계 1위를 지킨다는 전략이다. 앞서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 전국 광대역 LTE-A 개막을 맞아 지난 19일 삼성전자와 손잡고 통신 업계 중 제일 먼저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시작해 시장을 선점했다.

SK텔레콤은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업체 노키아와 5G 기술 공동 개발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지난 24일(현지시간) 핀란드 노키아 본사에서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양해 각서 체결을 통해 차세대 5G 기지국 개발에 필수적인 가상화 및 소프트웨어 기반 망 구성 기술, 차세대 클라우드 관리와 기가급 데이터 전송을 위한 기술 등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할 방침이다. 가상화 기지국과 가상화 무선망의 검증 및 시연, 해당 차세대 무선망 위에서 사용될 솔루션과 앱 검증까지 협업이 추진된다.

박진효 SK텔레콤 네트워크 기술원장은 "노키아 MOU를 통해 5G 기지국 기술 개발에 나서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차세대 네트워크를 위한 기술 개발에 힘써 미래 통신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디지털 음향기기 업체 아이리버의 최대 주주에 올랐다. SK텔레콤은 약 295억원에 아이리버 지분 39.57%를 1주당 약 2880.7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지난 24일 체결했다. 아이리버는 2000년대 중반까지 mp3 플레이어로 큰 명성을 얻었지만 스마트폰 시대 도래와 함께 침체기를 겪던 중 SK텔레콤의 IT 액세서리 사업 확장 전략에 따라 합병을 택했다. 8월 13일 양수대금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SK텔레콤은 아이리버의 최대 주주 지위를 획득한다.

SK텔레콤 측은 "아이리버 인수는 SK텔레콤의 '스마트 앱세서리'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 스마트빔, 스마트 로봇, 스마트 미러링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이리버 인수를 통해 수익모델과 경쟁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스마트폰 문자 삼매경 25일 서울 경복궁에서 열린 SK텔레콤 '제5회 이음페스티벌'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조립과 촬영 등 활용 능력을 겨루고 있다. SK텔레콤은 연령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총 1만700명의 어르신에게 휴대전화 활용 교육을 시행해왔다. /연합뉴스

'빕스', 여름 신메뉴 스테이크하우스 빕스가 '썸머 테이블'을 테마로 한 여름 신메뉴 출시를 기념해 25일 CJ 푸드빌 본사에서 사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 삼성전자 제쳤다

대학생 직장선호도 조사서 1위 올라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대학생 직장 선호도 조사에서 1위 자리를 빼앗겼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전국 4년제 대학교 재학생 1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1%가 대한항공을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꼽았다고 25일 밝혔다. 감성마케팅이 대학생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대한항공의 순위가 급상승했다고 인크루트는 설명했다.

반면 2004년부터 시작한 조사에서 10년 연속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던 삼성전자(5.9%)는 올해 2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이어 국민은행(4.7%), 아모레퍼시픽(4.6%), CJ제일제당(4.4%) 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포스코(3.7%), 한국전력공사(3.6%), NHN(3.1%), 현대자동차(2.6%), 아시아나항공(2.5%) 순으로 상위 10위권을 형성했다.

기업별로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했다.

대한항공, 삼성전자, 아시아나항공을 선택한 대학생들은 우수한 복리후생을 높이 평가했다.

아모레퍼시픽과 포스코는 동종업계와 지역사회에서 선도기업 이미지, CJ제일제당과 NHN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선호하는 이유로 꼽혔다.

국민은행은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 한국전력공사는 안정성, 현대자동차는 만족스러운 급여와 투명하고 공평한 보상제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복지, 사회를 선도하는 이미지, 즐거움을 기업에 요구하는 구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기업들은 내실을 갖추고 내부 직원을 만족시켜야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알뜰폰 LTE 반값요금제 나왔다

미래부, 활성화 방안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이 기존 이동통신 3사 요금제보다 최대 50% 저렴한 3G·LTE 정액 요금제를 출시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또 중소 알뜰폰 업체 보호를 위해 이통3사의 자회사 시장점유율이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 발표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가 망 도매제공 사업자(MNO)에 지불하는 망 도매대가 추가 인하 ▲반값요금제 대량 출시 ▲이통3사 자회사들의 시장점유율 제한 ▲단말기 할부채권 유동화 지원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저소득층 전용 요금제 출시 등을 통해 알뜰폰 시장을 활발히 한다는 계획이다.

망 도매대가는 음성은 분당 42.21원에서 39.33원, 데이터는 MB당 11.15원에서 9.64원까지 인하키로 했다. 이번 인하로 소매요금 대비 음성은 64%, 데이터는 81%까지 할인돼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업 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제 출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망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한국케이블텔레콤(KCT), SK텔링크, CJ헬로비전, 홈플러스,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KTIS, LG미디어로그 등 8개 알뜰폰 사업자는 6~7월 중 기존 이통3사 요금제에 비해 서비스는 동일하되 30~50% 저렴한 42개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이통3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 시장점유율을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로 제한했다. 현재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가 5월 현재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16.3%인 점을 고려하면, KT와 LG유플러스가 자회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점유율은 전체 알뜰폰 시장의 33% 이내로 제한된 셈이다.

한 알뜰폰 관계자는 "망 도매대가 인하, 단말기 할부채권 유동화 등 실질적으로 알뜰폰 업계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점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이통3사 자회사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이 생각보다 높게 책정된 것같아 기존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직격탄을 맞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요우커 유치하자"

대한상의, 내수활성화 방안

"해외로 나서는 요우커가 1억명임을 감안할 때 이중 10%만 우리가 유치해도 그리스수준의 관광국가가 될 수 있다."

25일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투자대비 해외투자비율이 2004년 9.3%에서 지난해 27.2%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내수 약화를 의미하고 제조업공동화로 이어질 수도 있어 국내 투자환경개선을 위해 이 같은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10대 과제 제언'을 통해 '일자리창출형 규제개혁', '급격한 기업부담 증가의 속도조절' 등 투자활성화 과제(4건),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 10% 유치 등 그리스수준 관광산업 육성' 등 서비스 활성화 과제(4건), '20만 빈 일자리 채우기', '기업소비 진작' 등 경제계 실천과제(2건) 등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일자리창출형 규제개혁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산업의 경우 세계최고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일자리창출 효과도 크지만, 각종 투자규제로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싱가폴, 태국처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 의료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거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규도입되는 노동·환경규제 등 기업부담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서는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김두탁기자 kimdt@

'올 뉴 카니발 1호차 주인공' 축구선수 김병지 선정 올 뉴 카니발 1호차 주인공에 선정된 김병지 선수(가운데)가 지난 24일 서울 압구정 기아차 국내영업본부 사옥에서 열린 '올 뉴 카니발 1호차 전달식'에 참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제공

소음 잡는 아파트 나온다

집 선택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 설계개발 한창

이르면 이달 말부터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층간·배수 소음을 잡기 위한 건설사들의 설계 개발이 한창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등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가 주택을 분양할 때 성능 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로써 수요자들은 1~4등급으로 매겨진 층간소음 차단 성능 정보를 미리 알고 집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음 차단 성능이 주택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도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통한 소음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닥차음재·완충재를 추가하거나 위층에서 내려오는 물소리를 줄여주는 설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모습이다.

현재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대림산업이다. 대림산업은 자사가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기술로 최근 특허까지 획득했다.

충격완충성능이 뛰어난 차음재를 개발해 가족들이 많이 머무르는 거실과 주방에는 표준(20㎜)보다 3배 두꺼운 60㎜, 침실에는 10㎜ 두꺼운 30㎜의 바닥차음단열재를 시공한다. 다음달 경기 광주시 역동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광주역'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위례신도시 '송파 힐스테이트'에 이어 올해 충남 당진에서 분양한 '당진 힐스테이트'에 층간소음 절감기술을 적용했다.

바닥 충격음 완화재의 두께를 30mm로 하고, 여기에 층상배관 설계를 통해 욕실 소음을 줄이는 방식이다. 기존 아파트는 아랫집 천장에 배수 배관을 시공해 욕실 소음이 발생했지만 해당 층의 바닥에 배수 배관을 시공하면 욕실에서 나는 욕수나 배수 소음이 줄게 된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강동구 고덕동에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욕실에서는 벽식 변기가 눈에 띈다.

벽식 변기는 변기와 연결된 배수배관을 벽면의 수직방향으로 설치함으로써, 급·배수 시 발행하는 급수·배수 소음을 저감한다. 욕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외 요진건설산업은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일산 요진 와이시티'에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해 법정기준보다 높은 250㎜ 슬라브와 30㎜ 완충재를 시공했다.

GS건설은 서울 역삼동 '역삼자이'에 층상이중배관 시스템을 설치, 욕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였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대기업 사외이사 37% '관피아'

신세계 82%로 '최고'…내수기업 비중 압도적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대기업 그룹의 '바람막이'용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선호도는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9개 그룹 사외이사의 관료 출신 비중은 37%로 전년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이중 법원·검찰을 비롯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기업 경영과 밀접한 4대 핵심 권력기관 출신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25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상호출자제한 49개 기업집단 238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출신 이력을 조사한 결과, 총 750명 중 36.9%인 277명이 관료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전체 사외이사 수는 7명 줄었지만, 관료 출신은 268명에서 9명이 늘었다.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중도 35.4%에서 1.5%포인트 상승했다.

관피아 역풍이 거세지만 대기업들조차 각종 규제 등 공권력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권력기관 출신 관료를 대거 영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외이사가 대주주 일가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기업이 오히려 외풍을 막는 '바람막이'로 악용하는 셈이다.

특히 올 들어 대기업 사외이사는 국세청(관세청)과 감사원 출신이 11명(20%) 이상 늘며 핵심 권력기관 출신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4대 권력기관 출신 인사는 165명에서 173명으로 늘었다. 관료 사외이사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1.6%에서 62.5%로 높아졌다.

법조(법원·검찰) 출신 인사가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무(국세청·관세청) 50명, 공정위 24명, 감사원 15명 순이었다. 반면 학계와 재계 출신 사외이사는 381명에서 367명으로 14명(-4%) 감소했고, 빈자리를 관료 출신 인사가 고스란히 차지했다.

그룹별로 신세계가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가장 높았다. 7개 상장사 17명의 사외이사 중 무려 82.4%인 14명이 관료 출신 인사였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푸드 등 전체 상장사의 절반이 넘는 4곳에서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100%를 보였다. /김태균기자 ksgit@

'신나는 바이오 실험여행'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를 100일 앞둔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신나는 바이오 실험여행'버스의 출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는 9월 열리는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 홍보와 학교 단위의 단체관람객 유치를 위해 '신나는 바이오 실험여행'버스를 운영한다. /연합뉴스

현대 더링스CC, 골프 대중화 선언

현대 더링스CC가 골프 대중화시대를 선언했다. 충남 태안기업도시 내 위치한 현대 더링스CC는 故 정주영 회장이 바다를 막아 농경지를 만든 지 30여년만에 서산 간척지 천수만 B지역을 관광·레저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첫 사업이다.

한투라티에라PFV가 5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조성한 36홀 정규코스 대중골프장이다.

현대더링스CC 운영사인 에이치엘이코리아골프 정재섭 대표는 현대그룹 출신으로, 미국 Professional Golfers Career College 골프매니지먼트 전문가 과정을 졸업했다.

또 다년간 SBS골프 해설위원, 이코노미스트 골프저널리스트 등으로 활동하며 대중 골프장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대중 골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해 현대 더링스CC는 골프장 사업의 거품을 제거하며 대중의 곁으로 한발 다가서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소 건설비용으로 다듬어졌지만, 36홀 골프코스와 클럽하우스, 티하우스와 편의시설은 사용에 불편함이 없다.

레스토랑에서는 착한 가격에 다양한 메뉴를 내놨다. 또 티하우스를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객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김태균기자

삼성전자, 평판 좋은 기업 10위

미 주간지 포브스 선정 … LG그룹 64위 올라

삼성전자가 미국 경제주간지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평판 좋은 100대 기업' 순위에서 10위에 올랐다.

25일 포브스가 컨설팅업체 '레퓨테이션 인스티튜드(Reputation Institute)'와 함께 발표한 '2014년 기업 평판 순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75.0점을 받아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공동 10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평판 좋은 기업 순위에서 10위권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2008년 196위를 기록했으며, 이후 2011년 43위, 2012년 21위, 2013년 16위로 점차 순위를 높여왔다.

가장 평판이 좋은 기업은 77.3점을 받은 월트디즈니와 구글. 그 뒤를 BMW·롤렉스(77.2점), 소니(75.9점), 캐논(75.7점), 애플(75.6점), 다임러(75.4점), 레고(75.1점)가 이었다.

국내 기업 중 100위 안에 든 곳은 삼성전자와 LG그룹단 두 곳뿐이다.

LG그룹은 68.8점으로 64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65위)보다 한 단계 순위가 내려간 것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여름방학 어린이 '코딩 캠프' 가자!

글로벌 이코노미

미국·영국 등 프로그래밍 교육 열풍…레고 장난감, 3D 게임 등 흥미 수업 진행

세계 각국에서 어린이 코딩(프로그래밍) 열풍이 불고 있다. 영국은 코딩을 국공립 초등학교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 오는 9월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미국에서는 여름 방학을 맞아 코딩 캠프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코딩 단체 '블랙걸스코드'는 유색 인종과 여학생을 위한 코딩 학교다. 이 단체는 다양한 인종과 여성이 정보기술(IT) 분야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블랙걸스코드는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해커톤'을 개최한다. 해커톤은 핵(Hack)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일종의 프로그램 경진대회다. 해커톤에 참가한 소녀들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프로그래밍 문제를 푼다.

해커톤 참가자 니아 존슨(12)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본적이 있다"면서 "코딩은 나에게 있어 새로운 언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코딩을 배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코딩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1996년 설립된 런던의 코딩 교육 업체 '펀테크'는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매년 여름이면 영국은 물론 유럽 전역에서 어린이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위해 펀테크를 찾는다. 레고 장난감, 3D 게임 디자인 등 흥미로운 수업 구성이 특징이다. 펀테크의 1주일 코딩 캠프 과정은 879파운드(약 152만원)다.

펀테크 설립자 쉐니즈 바버는 "어린이를 위한 코딩이지만 단순한 놀이용은 아니다"면서 "나중에 복잡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짜인 학습 구성에 부모들도 놀란다"고 밝혔다.

과거 자녀를 코딩 학교에 보내는 부모 대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MS)나 휴렛패커드(HP) 등 IT 업체 종사자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문 기술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부모도 점점 자녀의 코딩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근무하는 한 남성은 "애들 셋을 모두 코딩 학교에 보냈다"면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 세대와 비교도 되지 않는 최첨단 기술 시대에 살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IT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어린 시절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훗날 자수성가할 수 있고 억만장자 반열에도 오를 수 있다고 말한다. 부모 도움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과 같은 유명 IT 기업이 거액을 주고 '코딩 꿈나무'가 만든 앱을 구입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美 시카고에 '스타워즈' 루카스 박물관 설립 '스타워즈'와 '인디애나존스'를 만든 미국 영화계의 거장 조지 루카스(69) 박물관이 시카고에 설립된다. 루카스 박물관 준비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루카스가 이날 자신의 박물관 설립 부지로 시카고를 최종 선택했다고 밝혔다. 루카스 박물관 유치를 위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가 뜨거운 경합을 벌였으나 루카스는 결국 '아내의 고향' 시카고를 박물관 설립지로 결정했다. 사진은 2005년 영화 시사회에서 루카스 감독이 스타워즈 캐릭터와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시카고 선타임즈 제공

안정·수익성 한국채권 인기

美 투자자들 닥치는 대로 사들여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채권이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들어 한국이 발행한 달러 채권은 170억 달러(약 17조3500억원)로 1년 전보다 62억 달러나 증가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을 미국 투자자가 사들였다고 덧붙였다.

한국 채권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에서 A+ 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한 단계 높은 중국과 일본은 물론 최고 등급인 홍콩과 싱가포르 채권보다도 미국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다.

이에 대해 웨스턴 애셋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한국 채권이 선진국의 안정성과 개도국의 수익성 매력을 모두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 관계자는 "미국 투자자들이 아시아로 복귀하면서 맨 먼저 한국 채권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감축) 확대 반사 이익도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WSJ은 미국의 우량 투자자들이 한국채권에 갈수록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채권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국명기자

3D프린터로 만든 인공고기 아세요

홍콩 갑부 리카싱 투자 화제

3D프린터로 만든 '인공고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아시아 최고 갑부인 리카싱 청쿵그룹 회장은 '인공 고기' 제작 업체에 거액을 투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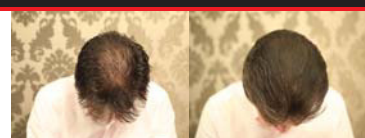
중국 신경보는 리 회장이 최근 3차원(3D) 인쇄 기법으로 고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10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25일 전했다.

리 회장이 투자한 곳은 '현대식 목장'(Modern Meadow)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지닌 미국 벤처 회사다. 3년 전에 창업한 이 회사는 3D 프린터로 돼지고기, 쇠고기 등과 유사한 육류와 피혁을 생산하고 있다. 생체조직 일부를 떼어내 배양한 세포를 3D프린터로 복사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3D프린터로 만든 인공 고기는 단백질, 지방 등 진짜 고기와 유사한 영양소를 갖고 있고 육질도 비슷하다"며 "동물을 살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고통도 주지 않아 앞으로 인류에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리 회장은 지난 2월 청쿵그룹 계열 투자사를 통해 인공 계란을 생산하는 미국 식품기업에 23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맛과 영양이 진짜 계란과 비슷하면서도 제조비용은 40%가량 낮은 인공계란은 지난 13일부터 홍콩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저출산이 카메라 시장 판도 바꿨다

자녀 많으면 DSLR, 적으면 미러리스 송혜교 내세운 소니 강자 캐논 제쳐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가 디지털 기기의 소비 패턴에서도 간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디지털카메라다. DSLR과 미러리스 제품의 비중에 큰 차이가 없어진 데서 이같은 시대의 조류를 읽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은 디지털 카메라를 보유한 20~50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카메라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응답자 중 49%가 DSLR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었다. 컴팩트 카메라(34.7%), 미러리스 카메라(16.3%) 순이었다.

특이할 만한 것은 DSLR의 경우 기혼자 응답자 중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유율이 높았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출산, 생일, 졸업식 등 소중한 순간을 남기고자 하는 가족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는 반대로 미러리스의 경우 기혼 응답자 중 자녀수가 적을수록 보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녀수가 많은 기혼자 보다 이동이 자유로워 휴대성이 좋은 카메라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모델 송혜교. /소니제공

즉 출산을 미루거나 한동안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 미러리스를 선택한다는 얘기다.

미러리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소니코리아 측의 자료를 보면 미러리스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국내 렌즈교환식 카메라 시장에서 35%의 점유율로 캐논을 제치고 1위를 달성했다는 것.

결국 '아기'가 없는 사람들이 미러리스를 구입하고 판매량은 조사를 할 때마다 늘고 있다.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출산, 육아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미러리스를 구입한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찾기 어렵지만 소니가 송혜교를 CF모델로 쓰는 데는 그러한 직감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며 "경쟁사 DSLR 제품을 알리는 배우들은 대부분 남성이거나 가족단위"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첨단 기술을 탑재한 다양한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 카메라의 등장으로 사진 문화가 대중화 되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를 알아보고 카메라 시장을 진단해 보기 위해 기획됐다.

이 조사는 '카메라 보유 현황, 카메라 구매 이유, 카메라 이용 목적, 이용 만족도' 등의 내용을 담은 문항으로 구성됐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어려운 태블릿을 손쉽게

꼼꼼IT리뷰

■ 와콤 뱀부 밴드

현대인에게 IT디바이스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 일은 익숙하다. 하지만 마우스와 손끝으로 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

와콤뱀부패드는 태블릿과 마우스의 중간 형태인 보급형 태블릿으로 무선 패드 위에 펜으로 원하는 드로잉을 하게 돕는다.

이 제품은 번거로운 설치가 따로 없어 편리하다.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USB만 꽂으면 무선으로 작동 되며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도 필요 없다. 스타일러스 펜은 연필 모양이라 여타 태블릿의 두툼한 전문가용 펜보다 적응하기 수월하다. 마우스 기능을 대신하면서도 기존 마우스와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

뱀부 패드의 단순한 사용자 환경은 태블릿 입문자와 비전문가에게 제격이다. 태블릿을 어렵고 멀게 느끼던 사람들도 손쉽게 포토샵과 오피스 프로그램 작업을 할 수 있다. 사진에 글씨를 새기거나 캐릭터를 그려 넣을 수도 있다. 수첩 크기로 휴대도 간편하다.

다만 뱀부 패드의 이같은 대중성은 보다 정교한 작업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필압과 드로잉 과정은 전문 태블릿보다 둔탁한 느낌이 있다.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간단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다면 뱀부 패드는 가격대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시중가 6만원대. /장윤희기자 unique@

벨기에전 결과 예측 아직도 궁금?

IT도 인문학이다

/박성훈기자 zen@

'인류가 쓸 수 있는 석유 매장량은 최소 30년, 최대 200년이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2100년께 100세로 늘어날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전망하는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지는 세상이다.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암울한 내일을 전하는 스토리도 있다.

그런데 이런 전망은 어떤 근거와 방법으로 도출되는 것일까. 사실 간단하다. 컴퓨터에 다양한 변수를 입력한 뒤 이를 수차례 반복 계산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시뮬레이션이다.

시뮬레이션 가동 횟수를 늘릴수록 해당 자료의 정확성은 높아진다고 한다.

브라질 월드컵 조별예선 2차전 한국과 알제리전이 끝난 뒤 수많은 축구팬들이 경기 결과를 예측했던 다양한 기사와 보도를 원망했다.

다양한 곳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공교롭게도 모두 한국의 승리를 점쳤기 때문이다. 특히 실제 선수의 능력치와 컨디션, 구장의 상황과 날씨까지 변수로 등록했다며 정확성을 떠들어댔던 축구 온라인 게임 관련 기업들은 '과거 예측 정확성'을 강조하며 이번에도 들어맞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런데 웬걸? 한국의 2-1, 1-0 승리는 꿈이었고 현실은 2-4 완패였다. 단순히 시뮬레이션을 수퍼컴퓨터로 하지 않아서였을까.(하긴, 수퍼컴퓨터로 돌리는 한국 기상청의 날씨 예측 결과를 보면…)

혹시 우리는 시뮬레이션의 치명적인 약점을 간과한 것은 아닐까. 즉 컴퓨터가 계산할 수 없는 변수를 너무 쉽게 무시한 게 아닐까.

2분 간격으로 두 골을 연속으로 먹었을 때의 패닉 상태, 골키퍼의 예상치 못한 실수, 감독의 객관성을 잃은 선수 발탁 등은 컴퓨터를 돌릴 때 전혀 입력되지 않은 변수다.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오판을 하거나 이성을 잃을 수 있는데 이런 요인은 시뮬레이션을 수백만 번 돌려도 반영되지 않는다.

또 한가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는 측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4년 만에 열리는 빅이벤트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매출도 덩달아 올라가는 이들의 마음가짐을 짐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무승부로 나왔더라도 한국이 아슬아슬하게 이긴다고 해야 분위기도 좋아지고 소비자들도 관련 제품에 대해 한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27일 오전 5시에 열리는 벨기에전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직도 궁금한가?

'인간이 100살 넘게 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100살 넘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냉엄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컴퓨터, 정확하는 데이터 입력자의 어설픈 전망이라는 얘기다.

63씨월드, 도심 속 환상 여행 즐기세요

이야기가 있는 상상의 바다…행동 전시·스릴워터·생태 설명회 등 프로그램 다양

5월과 6월 황금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와 함께 휴가 시즌이 시작됐다. 하지만 장마를 앞두고 습한 날씨와 소나기가 이어지면서 나들이나 여행을 떠나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에 도심 속에서 다양한 해양생물의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국내 대표 아쿠아리움 '63씨월드'를 소개한다.

◆펭귄과 수달이랑 놀아볼까?

63씨월드에서 먼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행동 전시'를 볼 수 있다. 행동 전시는 동물의 개성적인 움직임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63씨월드는 '펭귄터치풀장'과 '수달의 고고 어드벤처'를 준비했다.

펭귄 터치풀장은 수조 위가 뚫려 있어 사람들이 바로 눈 앞에서 펭귄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자카스 펭귄과 임금 펭귄 등이 살고 있다. 특히 자카스 펭귄은 사람과 친화적인 성격으로 풀장을 찾은 사람들과 친근하게 어울리며 재롱을 피우기도 한다.

또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개구쟁이 수달의 고고 어드벤처는 입체적으로 결합돼 있는 수조가 특징이다. 수달은 생태적 특성과 야생 본연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달과 악수도 하고 먹이를 주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스릴워터'

대형 수조 위에 위치한 '스릴워터'는 바닥이 투명한 강화 아크릴로 만들어져 있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아찔한 느낌을 전해주는 이색 공간이다.

도심 속에서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발 아래로는 별돔, 까치상어, 가오리 등 물고기가 노는 모습과 함께 다이버가 유영하는 광경도 펼쳐진다.

운이 좋으면 물고기들이 서로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 튀어 오르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으며 대형 수조를 내려다볼 수 있는 발코니도 갖춰져 있다.

◆63씨월드, 바다 가족 생태 설명회

이와 함께 63씨월드만의 자랑거리인 다채로운 바다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 설명회가 있다.

우선 '슈퍼 물개 오디션'은 캘리포니아 물개의 생태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설명하는 자리로 캘리포니아 물개 딕시와 티코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색소폰을 연주하는 앙증맞은 장기를 뽐낸다. '매직 물범 해리와 로리'에서는 베테랑 다이버의 노하우는 물론 마법으로 씨월드 요정의 왕관을 찾는 물범의 독특한 장기를 볼 수 있다. 또 노란 리본이 멋진 킹펭귄을 만나볼 수 있는 '펭귄 피딩쇼'도 빠뜨릴 수 없다.

아울러 수중발레쇼는 싱크로나이즈드 국가대표 출신의 연기자가 바다생물이 가득한 대형 수조에서 감미로운 음악에 맞춰 연기를 펼치는 수중공연이다. 특히 연기자의 우아한 몸짓이 다양한 물고기들과 함께 어우러진 장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환상적인 느낌을 전해준다.

이외에도 중국에서 재복을 의미하는 '888'을 주제로 꾸며진 이색 수조 '차이나존'과 다양한 파충류가 기다리는 '정글존' 등도 관람객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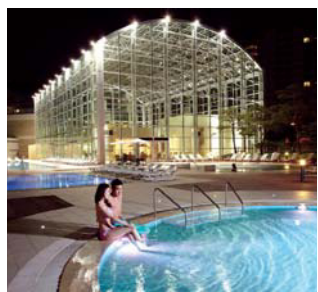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곤지암리조트, '패밀리스파' 야외존 오픈

개성 있는 스파풀이 재미 더해…수치료 가능한 테라피도 운영

서브원 곤지암리조트의 스파라스파가 27일부터 야외 물놀이와 스파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패밀리스파' 야외존을 오픈한다.

해외의 풀빌라를 옮겨 놓은 것 같은 이국적인 시설들을 갖춘 야외존에는 가족이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스위밍풀과 함께 물놀이에 재미를 더하는 마인드풀, EQ풀 등의 스파풀이 마련돼 있다.

특히 마인드풀에서는 감성 조명을 이용한 컬러 테라피를 경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에어버블을 이용한 '수(水)치료'도 받을 수 있다.

또 스파라스파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카라반을 신규 설치했으며 물놀이 이후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선케어 테라피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마사지 링, 버블 시스템으로 비데풀을 즐길 수 있는 액티브풀과 사막의 기후를 체험할 수 있는 사하라룸도 운영된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요금은 선베드와 구명조끼를 포함해 성인 기준 주중 3만5000원, 주말·공휴일 4만2000원이다. /황재용기자

인도네시아 인기 가수 관광홍보대사 위촉 한국관광공사가 인도네시아 인기 여성그룹 SOS의 멤버 마리아 올리비아 부디만(왼쪽)과 남성그룹 S4의 멤버 필리 피르라나(오른쪽)를 한국관광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들은 관광공사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 중인 특집 프로그램에서 가상커플로 호흡을 맞추며 한국의 웨딩과 허니문의 매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휴가 선호도…경상도가 강원 눌러

대부분 놀이·관광보다 '휴식'이 주목적

올해 여름 국내 휴가지역 선호도 조사에서 경상도 지역이 강원도를 눌렀다.

모바일 리서치 기업 케이서베이가 전국 성인남여 1032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지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경상도(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지역이라는 응답이 278명(26.94%)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70명(26.16%)이 응답한 '강원도', 216명(20.93%)이 답한 '제주도'가 각각 2·3위에 올랐다.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은 102명(9.88%), 광주와 전남·북 등 전라도 지역은 101명(9.79%), 세종과 대전, 충남·북의 충청도 지역은 65명(6.30%)였다.

이와 별도로 해당지역에서 가장 비중을 둘 활동을 ▲휴식 ▲놀이 ▲관광 ▲식도락 등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에서는 경상도 선호자는 놀이(98명·35.25%)와 휴식(95명·34.17%)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강원도 선호자는 136명(50.37%)이 '휴식', 75명(27.78%)이 '놀이'라고 응답했다. 제주도 선호자는 107명(49.54%)이 '휴식', 40명(18.52%)이 '놀이'라고 답했다. 각 지역 휴가지에서는 '휴식'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다. /정영일기자

'산두고 페스티벌' 7월 한 달간 열려

필리핀관광청은 다음달 한 달간 필리핀 보홀섬에서 '산두고 페스티벌(Sandugo Festival)'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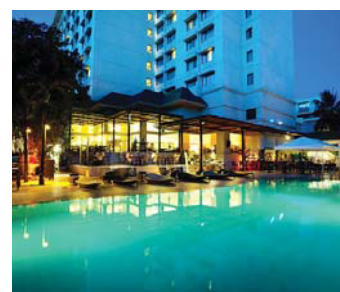
페스티벌은 필리핀 최대 축제 중 하나로 1565년 보홀의 원주민 추장 다투 시카투나와 스페인의 초대 필리핀 총독 미겔 로페스 데 레가스피가 맺은 '피의 조약'에서 유래됐다.

축제에서는 필리핀 전통문화를 비롯해 불꽃놀이, 스트리트 댄스대회, 미스 보홀 산두고 선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또 필리핀 현지인들과 어울리는 동시에 보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만끽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개관기념 '웨딩 허니문 이벤트'

르네상스 서울 호텔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개관 26주년을 맞이해 '웨딩 허니문 이벤트'를 벌인다.

호텔은 오는 11월과 12월 예식을 계약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꿈의 허니문 여행지'라 불리는 메리어트 세부시티 리조트 3박 숙박권을 선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벤트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문의: 02)2222-8600

/황재용기자 hsoul38@

틈새 겨냥 '매시업 마케팅' 눈길

주류·숙취해소 음료 업계 젊은 세대·여성층 잡기

불황에 침체된 주류 및 숙취해소음료 시장이 주 고객층 외에 새로운 고객층까지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세대나 성별 등이 선호하는 각각의 요소를 접목시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선보이는 이른바 '매시업(Mashup)마케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에 집중했던 위스키시장이 최근 젊은 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전략으로 '매시업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하이트진로는 패션코드를 제품에 접목시킨 위스키 '더클래스'를 지난 4월 출시했다. 기존의 중후한 멋만을 강조한 전통적인 술병 디자인을 탈피하고 슬림한 남성 수트를 연상시키는 형태의 레이블 없는 누드 콘셉트를 과감히 적용했다.

디아지오코리아도 젊은층의 입맛을 고려해 위스키에 과일향을 첨가한 '윈저 블랙'을 출시했다. 또 골든블루는 여성들의 로망인 다이아몬드를 제품 콘셉트에 적용시킨 순한 술 '골든블루 더 다이아몬드'를 선보였다.

주류업계와 발맞춰 젊은 세대나 여성의 선호 요소를 적극 반영시킨 숙취해소 제품도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업체인 디알엑스플러스는 카레의 주 원료인 강황으로 만든 과립형 숙취해소제품 '우콘파워'를 출시해 5개월 만에 12만개를 판매할 정도로 인기다. 새콤달콤한 맛과 함께 과립형 스틱타입으로 소지가 간편한 것도 인기 요인이 됐다.

CJ제일제당도 기존 헛개컨디션의 주요 성분은 유지하면서 피부 보습에 좋은 히알루론산과 비타민C 등을 추가한 '컨디션 레이디'를 지난해 말 추가로 선보였다. 이 외에도 양배추 반포기 분량에 해당하는 210g의 식이섬유와 37㎉의 저열량 제품인 '술깨는 비밀'도 여성은 물론 젊은 세대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영일기자 prms@

한여름에도 숙면은 필요

올바른 수면리듬 필요…카페인·야식 피하고 15분 정도 낮잠 도움

월드컵이 진행되면서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과 우리나라의 시차가 12시간 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월드컵 경기를 보지 않더라도 더위로 잠을 설치는 경우도 흔해지고 있다.

◆최소 6시간 이상 자는 것이 좋아

수면은 피로가 누적된 뇌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회복하는 생리적인 의식 상실 상태를 말한다. 많이 자는 것보다 잘 자는 것이 중요한데 양질의 수면은 피로 해소는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 수면을 통해 우리는 노폐물을 배출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며 세포에 활력을 전달한다.

하지만 월드컵 밤샘응원이나 더위로 인해 수면리듬이 깨지면 후유증이 생긴다. 낮 시간 동안 신체활동이 떨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질 뿐 아니라 각종 사고의 위험도 커진다.

월드컵 경기도 중요하지만 최소 6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울러 생체리듬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평소 생활리듬을 유지하면서 기상시간이나 식사시간 등을 규칙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피로감과 무기력감이 든다면 15~20분 낮잠을 자야 한다.

또 피로를 덜고자 하는 커피나 카페인 음료도 피해야 한다. 카페인을 다량 섭취하면 이뇨작용에 의한 탈수나 식욕저하가 올 수 있고 수면 부족으로 약해진 소화기능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야식도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다.

이향운 이대목동병원 수면센터 교수는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 하루 6~8시간의 수면을 유지하고 30분이 넘어가는 낮잠은 피하는 것이 좋다"며 "야식은 칼로리가 낮은 과일과 채소 등을 선택하고 수면 장애가 지속되면 병원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노랑체리 먹을까 빨강체리 먹을까?" 이마트는 노란색을 띠며 당도가 일반 다크체리류 보다 높은 고당도 프리미엄 체리인 '레이니어(rainier)체리'를 항공직송으로 미국 워싱턴 주에서 들여와 25일 용산점 판매를 시작으로 26일 이마트 전점에서 판매한다. /이마트 제공

여성 3명 중 1명, 1년 내내 다이어트

대한민국 2030여성 3명 중 1명은 1년 내내 다이어트 중인 것으로 조사 됐으며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자신이라고 답했다.

코코넛오일 전문업체 코다팩토리(대표 박민)가 20~30대 여성 2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9%는 항상 다이어트 중이라 답했다.

다이어트를 가장 많이 시도하는 직업군은 사무·기술·영업직(35%)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20%)와 대학생(17%)이 뒤를 이었다.

자신이 성공한 다이어트 비법(중복답변)으로 운동(162명)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식이요법(110명) ▲다이어트 보조식품(50명) ▲단식(40명) 순이었다. 다이어트 성공경험이 없다는 답변도 44명에 달했다.

다이어트에 있어 의지부족(60.8%)이 실패의 일등공신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폭식 및 회식(31.4%) ▲요요현상(6.4%) 순으로 조사됐다. 다이어트 성공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으로는 패션 쇼핑(49.29%)이 가장 많았으며 비키니 입기(30%)가 2위를 차지, 여름휴가를 대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정영일기자

동아오츠카 페이스북 '좋아요' 5만 돌파

동아오츠카(사장 이원희)가 기업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Dongaotsuka) '좋아요' 5만 명 돌파를 기념해 고객 감사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페이스북에 댓글을 통해 동아오츠카 제품 중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를 소개하고 자신만의 즐기는 방법과 좋아하는 이유 등을 사연으로 남기면 참여할 수 있다. 또 회사는 이들에게 외식상품권, 동아오츠카 블루박스, 영화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아련 동아오츠카 SNS 담당자는 "페이스북 페이지는 고객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소통 채널이다. 앞으로는 참여형 이벤트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황재용기자

"힘내라! 한국…먹은만큼 무료포장"

강강술래, 응원피로 극복 이벤트 나서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무더위와 새벽 응원에 지친 고객들을 응원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벌인다.

상계점은 7월 10일까지 술래양념이나 왕양념갈비 메뉴를 시키면 한우불고기를, 한돈·돼지양념구이를 시키면 같은 메뉴를 주문한 양만큼 무료 포장해 증정한다.

늘봄농원점은 같은 기간 술래·강강양념/왕양념갈비/한우스페셜/한우모둠구이를 시키면 한우불고기를, 한돈·돼지양념구이를 시키면 돼지양념을 시킨 양만큼 포장해 준다.

시흥점은 내달 11일까지 주중에 매장에서 돼지양념구이를 주문한 양만큼 나갈 때 동일 메뉴를 무료로 포장해주며, 술래·강강·한돈·돼지양념구이 포장상품 '1+1 이벤트'도 벌인다.

신림점도 내달 4일까지 매장에서 술래양념구이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로 더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매장 진행 행사의 경우 해피아워 및 정식류 제외)

이달 말까지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X3박스)를 반값인 1만8000원, '갈비맛 쇠고기육포'(50gX10봉)는 40% 할인된 3만6000원에 파격 할인 판매한다.

베스트셀링 메뉴인 강강양념(520g)과 돼지양념(500g), 한돈양념(500g), 한우불고기(500g)로 구성된 나들이세트도 40% 할인된 6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정영일기자

1억년전, 공룡들이 풀 뜯을 때
석유가 생겼어요

그걸 우리가 개발하죠
15개국 22광구에서

미래도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배터리**로
자동차를 달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석탄**도 **이산화탄소**도
그린에너지로 만들죠

과거부터 현재, 다시 미래 에너지까지

SK 에너지 | SK 종합화학 | SK 루브리컨츠 | SK 인천석유화학 |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더페이스샵, '빅 세일' 진행

오늘부터 12일간 20~50% 할인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은 26일부터 12일간 '빅 세일'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달 7일까지 더페이스샵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품목별로 20~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자외선 차단제 및 바디 전품목, 태닝오일 등 바캉스 필수품들에 50%의 높은 할인률을 적용했다. 땀 나는 여름철 사용하기 좋은 데오드란트 등 소취제품과 향수류, 뜨거운 햇볕으로 건조하고 자극 받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수지크림 대용량', 진정 작용이 있는 '알로에젤 대용량' 등도 반값에 판매한다.

대표적인 50% 할인품목인 '내추럴 선 Eco 파워 롱래스팅 선'은 더페이스샵 베스트셀링 자외선 차단제로 강력한 자외선 차단 및 워터프루프 기능으로 땀이나 물에 노출이 많은 여름철에 효과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해 준다. 또한 해바라기 새싹 추출물을 함유해 자외선에 자극 받은 피부를 순하고 촉촉하게 보호해 준다.

'치아씨드 피지잡는 수분크림 대용량'은 목화씨앗이 과다한 피지는 잡아주고 치아씨앗이 피부 속 깊이 풍부한 수분을 전달해주는 베스트셀러 수분크림으로 땀과 피지로 피부 표면은 번들거리고 피부 속은 건조하기 쉬운 여름철에 사용하기에 좋다. 출시 이후 100만 개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다.

이 밖에 쿠션 파운데이션 '쿠션 스크린셀' '핑거 글로스' '립 틴트 스틱' '워터프루프 BB' 등 색조 제품도 할인하며, 3만원 이상 제품 구매시 지정기간 내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로 증정한다.

/박지원기자

'에고 컨슈머' 활동 주력

패션·뷰티업계, 나만의 멋·개성 중시 고객 서비스

최근 유행보다 개인의 개성과 스타일에 맞춘 커스텀 메이드 제품을 선호하는 '에고 컨슈머(ego consumer)'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이로 인해 패션·뷰티업계에서는 기존에 규격화된 상품 중에서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추천하는 것을 넘어 개인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주관이 강한 소비 패턴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가발전문기업 하이모의 경우 맞춤제작 전 개인별 고유한 두피 및 탈모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해 착용감을 높이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업체의 '3D 스캐너 시스템'은 서울대학교 산학 협동벤처와 함께 개발한 입체두상측정기로, 개인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전송하면 측정된 데이터가 몰딩기법으로 개인의 두상에 맞는 가발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 또 컴퓨터 가상 화면으로 실제 가발을 직접 착용하기 전 여러 스타일의 가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버추얼 헤어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다.

향수업체 에데니끄는 고객의 성향, 체질, 사회적 위치에 맞춘 향수 컨설팅을 통해 맞춤 향수를 제작한다. 에데니끄의 향 컨설턴트가 고객의 향 선호도와 성격을 알아보는 테스트를 진행해 4가지의 성향으로 분류한 후 각 성향에 맞는 향을 고객이 직접 선택하고 조합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다.

패션업계도 나만의 제품을 완성하는 커스터마이징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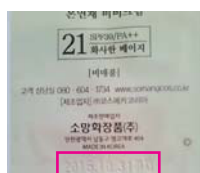
쥬얼리 브랜드 아가타파리는 다양한 컬러의 가죽과 실리콘 밴드에 200여 개의 개성 있는 참을 골라 나만의 팔찌를 완성할 수 있는 '아가츄(AGAT'YOU) 컬렉션'을 통해 매 시즌 다채로운 디자인과 스토리가 담긴 참을 선보이고 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알록달록 우산·장화 홈플러스(사장 도성환)는 플로렌스&프레드 캔디팝 3단 접이 우산과 장우산을 26일부터 7월 9일까지 약 30% 할인된 가격인 9900원에 균일가 판매한다. 홈플러스의 플로렌스&프레드 캔디팝 우산은 라임·민트·퍼플 등 8가지 컬러로 3단 접이식과 장우산 등 두 가지 타입이다. /홈플러스 제공

소망화장품, 샘플도 유통기한 표기

소망화장품은 올해 2월부터 자사 화장품 구매 시 제공하는 모든 샘플에 사용기한을 표기하고 있다.

샘플 화장품의 경우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표기 의무가 없는 만큼 화장품 변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화장품 법상 샘플 화장품(10㎖ 또는 10g 이하의 화장품 또는 판매 목적이 아닌 화장품)에 대해서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 명칭만을 표시하도록 명시돼 있어 사용기한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월드컵 기념 '1+1' 이벤트

한국형 청바지 '이기진'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1+1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사는 블랙 앤 화이트 색상의 30수면 5부 혹은 7부 바지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이벤트의 일환으로 티셔츠를 제공한다.

이 브랜드는 진캐주얼 전문브랜드로 원단부터 디자인·워싱·봉제·부자재 하나까지 모든 제품과 생산 과정을 국내에서 100%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학철기자

'백패킹·솔로캠핑' 미니멀 캠핑 대세

가볍고 설치·해체 편한 1~2인용 '경량 텐트' 열전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국제아웃도어캠핑페스티벌이 지난 15일 방문객 7만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송도에서 있었던 전년 행사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방문객 수만 봐도 캠핑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유독 관람객의 발목을 잡은 것은 '미니멀 캠핑'에 방점을 둔 제품이었다.

과거에는 가족 캠핑을 위한 큰 사이즈의 텐트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솔로 캠핑, 백패킹 등 가볍게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룹 캠핑을 하더라도 타프(그늘막)를 연결해 휴식을 위한 공동 공간을 늘리되, 잠은 각자의 텐트에서 자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미니멀 캠핑을 위한 경량 텐트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텐트류는 대부분 사이즈가 1~2인용으로 작고 가벼운 무게와 설치·해체작업이 쉽다는 점이 특징이다.

콜맨의 신제품 '윈즈라이트 돔 W210'은 미니멀 캠핑에 최적화된 1~2인용 제품으로 컴팩트한 수납이 가능한 경량 돔 텐트다.

몽벨에서는 기능성 텐트인 '스텔라릿지 텐트'를 출시하며 백패커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백패킹에 최적화돼 있을 뿐 아니라 멀리서도 쉽게 눈에 띄는 노란 색을 적용했다.

블랙야크의 '미라지돔 텐트'는 초보자들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제품에 간결성을 부여한 것이 눈에 띈다. 이 제품은 토글을 이용해 손쉽게 이너텐트를 설치하거나 해체할 수 있다.

K2의 '트랙베이스'는 휴대가 용이한 2인용 텐트다. 2개의 폴로 설치가 가능해 초보자도 사용이 편리하다. 공간 확장이 용이하고 내부 공간은 자전거 등 큰 물건을 수납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소녀괴담'에서 소녀귀신 연기한 **김소은**

올 여름 '호러퀸'은 내가 '찜'

배우 김소은(26)이 올 여름 극장가의 '호러퀸' 자리를 예약했다. '두 사람이다' 이후 8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인 감성공포 영화 '소녀괴담'(다음달 3일 개봉)을 통해서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가을양, '마의'의 숙휘공주 등 그동안 발랄한 역할로 사랑받았지만 이번에는 소녀귀신으로 관객과 만난다.

◆ 달콤살벌한 귀신

김소은은 '소녀괴담'에서 이름도, 나이도, 왕따 였던 과거의 아픈 기억도 잊은 채 학교 주변을 맴도는 귀신을 연기했다. 그러나 기존의 무서운 귀신이미지와 다르다. 그동안 김소은이 드라마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잘 웃고 발랄한 귀신이다. 학교에 전학온 소년 인수(강하늘)와 풋풋한 사랑도 나눈다.

"실은 공포 영화를 무서워서 잘 못 보는 편이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연할 생각을 못했죠. '소녀괴담'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도 자극적이고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러나 이후에 시나리오 내용이 바뀌고 로맨스가 추가돼 출연을 결심했어요. 귀신이지만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역이죠."

귀신 분장에 스태프들 깜짝 놀라
중앙대 동기 강하늘과 호흡 척척
'메이드 인 소은' 가방 만들고파

촬영 현장 분위기가 공포 영화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화기애애했다. 강하늘·한혜린·박두식 등 또래 배우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촬영해서다. 영화의 연출을 맡은 오인천 감독도 마음놓고 연기하라며 현장 분위기를 풀어줬다.

"촬영을 위해 숙소에서 단체 생활을 했는데 또래와 있으니 재미있었어요. 촬영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면 늘 함께 한 잔 했죠. 제가 성격이 털털해 노는 데는 빠지지 않는 편이거든요. 함께 출연한 박두식 오빠가 남동생 같다고 하더라고요. 귀신 분장을 하고 밤에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깜짝 놀래키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강하늘과는 더욱 호흡이 척척 맞았다. 중앙대 연극영화학과에 함께 다닌 친한 친구 사이라 첫 촬영부터 수월 했다. 친밀한 분위기 때문인지 얼마전에는 팬들로부터 열애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대학 동기는 가족과 마찬가지"라고 한 마디로 명쾌하게 입장을 정리했다.

"드라마만 출연해서 영화에 목말라 있을 때 '소녀괴담'을 만났어요. 로맨스가 있어서 저처럼 공포물을 못 보는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볼 수 있는 작품이니 기대해주세요. 달콤살벌한 귀신을 보여드릴께요."

◆연예계 환경지킴이

김소은은 연예계 환경지킴이로 유명한 박진희 못지 않게 환경에 남다른 관심을 지니고 있다. 늘 검소하게 생활하는 부모님 슬하에서 자란 덕분이다. 강하늘과 지난 5월 열린 서울환경영화제의 홍보대사를 맡기도 했다.

"평소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장바구니와 텀블러를 늘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배운 습관이죠. 부모님은 집에서 전깃불도 잘 켜지 않으세요. 저도 제 방에 있을 때에는 주로 향초를 켜놓곤 해요."

음식도 사 먹는 것보다는 직접 해 먹는 것을 좋아한다. 집에서 음식을 해놓고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먹는 것이 일상의 큰 재미란다. "주특기는 각종 야채를 넣어 만든 계란말이"라며 해맑게 미소 지었다.

요즘 최대 관심사는 가죽 공예. 또래의 젊은 아가씨처럼 멋 부리는 것을 좋아해 패션에 관심은 많지만 가방만큼은 비싼 명품을 사서 드는 것보다 직접 만든 것에 더 매력을 느낀다.

"가죽 공예를 배우고 싶은데 작품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요. 이번 영화 홍보를 끝내면 조만간 새 드라마 촬영에 바로 들어갈 예정이라서요. 촬영이 끝나고 배우려고 해요. 소속사에서도 좋은 생각이라며 꼭 배워보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배워서 '메이드 인 소은' 가방을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싶어요."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
사진/한제훈(라운드테이블)·디자인/최송이

김수현 중국 생수 광고 예정대로

배우 김수현(사진 오른쪽)의 소속사가 최근 중국 생수광고 모델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키이스트 측은 25일 김수현의 생수 광고 계약은 해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키이스트는 "김수현이 해당 제품의 모델로 나선 것은 현재 중국 내 한국 콘텐츠에 의한 한류 재점화로 인해 김수현의 높은 광고 효과에 대한 기대와 현지의 뜨거운 반응을 헝다그룹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모델 기용 요청이 있었기에 성사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헝다그룹과 키이스트는 앞으로도 한중 양국의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더 많은 교류와 우호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았고, 중국에서 생산과 판매되는 헝다그룹의 생수제품 취수원의 현지 표기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었음을 서로 인정하며 이해했다. 이에 더 이상의 오해나 억측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수현과 전지현은 헝다그룹의 생수 광고 모델로 나란히 발탁돼 촬영을 마쳤다. 그러나 생수 용기에 취수원이 백두산의 중국명인 장백산이라고 표시돼 일부에서는 중국의 역사왜곡 움직임인 동북공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수현과 전지현은 헝다그룹 측에 광고모델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한편 전지현 측은 "처음부터 원만한 해결을 모색했고 여전히 헝다그룹 측과 협의 중이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공식 입장이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양성운기자 ysw@

잠실벌 화려한 왕의 귀환

JYJ 3년 만에 새 앨범…8월 올림픽주경기장서 대형 콘서트

JYJ(김재중·박유천·김준수·사진)가 초대형 콘서트를 열고 3년 만에 3인조 그룹으로 화려하게 복귀한다.

JYJ는 다음달 말 두 번째 정규앨범을 발표하고 8월 9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컴백 공연을 한다. 2010년 11월 이틀간 총 7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JYJ는 4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팬들과 만난다.

솔로 음반과 연기로 개별 활동을 해왔던 JYJ는 최근 그룹으로 복귀 소식을 알려 국내는 물론 해외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컴백 소식을 담은 '더 리턴 오브 더 킹'이라는 이름의 예고 사진은 각종 오프라인 지면과 온라인 포털사이트, 도심 곳곳의 주요 지역에 내걸리며 주목받았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전 세계 공연 프로모터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오랜 시간 JYJ의 컴백을 기다린 만큼 이번 올림픽주경기장 공연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매주 아시아 각 도시를 돌며 팬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규 2집에는 국내외 작곡가들의 다양한 곡이 수록될 예정이다. 멤버들이 수록곡 가사 대부분을 썼다.

JYJ는 "오랜만에 앨범과 공연으로 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고, 멤버와 함께하는 음악 작업도 기쁘고 행복하다"며 "기분 좋은 앨범과 공연으로 팬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재 김재중은 MBC 월화드라마 '트라이앵글'로 안방에서 호평받고 있고, 김준수는 다음달 개막하는 뮤지컬 '드라큘라' 연습에 한창이다. 박유천은 아시아 팬미팅을 진행 중이며 8월 첫 영화 '해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열애 부인' 최자·설리 사진 유출

다이나믹 듀오 최자(왼쪽 사진)와 에프엑스 설리(오른쪽)의 스티커사진이 유출됐다. 앞서 열애설을 부인한 바 있어 두 사람의 관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최자가 분실한 지갑 안에서 발견됐고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지갑 안에는 '돈 작작 써'라는 글이 적힌 설리의 사진이 있다. 최자와 설리가 볼을 맞대고 입술을 내민 채 찍은 스티커 사진도 있다. 펜으로 선글라스와 수염도 그리며 장난 친 흔적도 보인다.

25일 최자의 소속사 아메바컬쳐 측은 "확인 결과 온라인에 공개된 지갑의 주인공은 최자 본인의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지갑 속 사진은 아티스트의 사생활 영역이라 할 말이 없다"며 "사생활을 유포한 부분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리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유포돼 열애설에 휩싸였다. 당시 설리는 "친한 오빠처럼 따르는 선배"라며 열애를 부인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

걸스데이 '썸머파티' 모여라

데뷔 첫 콘서트 티켓 오픈

4인조 걸그룹 걸스데이(소진·유라·민아·혜리)가 데뷔 4주년을 기념해 단독콘서트 '썸머 파티'를 개최한다.

25일 드림티엔터테인먼트는 "다음달 13일 광진구 유니클로 악스홀에서 걸스데이의 첫 단독콘서트 '썸머 파티'가 열린다. 콘서트 티켓은 26일 오후 4시에 오픈된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9일 데뷔한 걸스데이는 콘서트에서 '반짝반짝' '한번만 안아줘' '나를 잊지마요' '기대해' '여자대통령' '썸씽' 등 기존 활동곡들과 새롭게 발표하는 썸머 스페셜 미니앨범의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걸스데이 단독콘서트 '썸머 파티' 포스터

소속사 관계자는 "걸스데이의 첫 번째 단독콘서트는 팬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가 크다"며 "공연수익금 전액은 플랜코리아에 기부돼 태국 치앙라이 소녀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연 취지를 밝혔다.

한편 걸스데이 첫 번째 단독콘서트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1544-1555)에서 진행한다. /양성운기자

tvN 금토드라마
tvN
연애 말고 결혼
남 일인 듯 남 일 아닌
밀당 전문 로맨스
한그루 | 연우진 | 정진운 | 한선화 | 허정민 | 윤소희
7/4 [금] 저녁 8시 40분 첫 방송

박기영 어쿠스틱 블랑 결성

가수 박기영이 기타리스트 이준호, 베이시스트 박영신과 함께 3인조 밴드 어쿠스틱 블랑을 결성했다.

어쿠스틱 블랑은 다음달 1일 포크·재즈·왈츠·월드 뮤직 등 다양한 장르가 담긴 첫 번째 미니 앨범 '어쿠스틱 블랑 Pt.1'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준호는 한국인 최초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리세오음악원 플라멩코 기타를 최고 과정까지 마친 기타리스트다. 박영신은 박기영과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재학 시절부터 함께 해온 동료로 김종서·이적·김연우·조성모 등 쟁쟁한 뮤지션들의 라이브 세션과 녹음에 참여한 실력파 베이시스트다.

박기영은 지난 1998년 정규 1집 앨범 '원'으로 데뷔해 다수의 히트곡을 탄생시켰다. 이후 3집 '혼잣말'부터작사·작곡·편곡·프로듀싱까지 직접 해내며 싱어송라이터로 자리매김했다. /김지민기자

밴드 '어쿠스틱 블랑'. 왼쪽부터 이준호·박기영·박영신. /포춘 엔터테인먼트

B1A4 첫 해외 콘서트

그룹 B1A4가 데뷔 4년 만에 첫 해외 콘서트를 떠난다.

25일 소속사 WM엔터테인먼트는 "B1A4가 오는 7월 다섯 번째 미니앨범 발매와 함께 '2014 B1A4 로드 트립 레디?'라는 타이틀로 월드 투어를 진행할 것"이라며 "8월 대만 타이베이, 중국 상하이, 9월 필리핀 마닐라를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팬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공연의 타이틀인 '로드 트립'은 기존 아이돌 그룹의 월드 투어의 형식을 B1A4식으로 재해석한 용어다. 첫 해외 투어를 위해 의기투합한 멤버들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했다.

'로드 트립'에서는 세계 각국의 팬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예정돼 있다. 멤버들의 설렘과 도전, 성장이 고스란히 담긴 지역별 맞춤 팬 서비스도 진행한다. /양성운기자 ysw@

B1A4 해외 콘서트 '2014 B1A4 로드 트립 레디?' 포스터.

SBS 새 월화극 '유혹' 최지우 /라운드테이블

SBS 주말극 '끝없는 사랑' 황정음

KBS2 월화극 '트로트의 연인' 정은지

여름 안방 다시 여인천하

최지우·황정음·정은지 잇따라 드라마 흥행 도전

안방에 여배우들이 돌아오고 있다. 올 초 '별에서 온 그대'의 전지현과 '기황후'의 하지원이 여성 파워를 증명했다. 이후 SBS '닥터이방인'의 이종석, '너희들은 포위됐다'의 이승기, MBC '개과천선'의 김명민 등 남자 배우 중심의 드라마가 방영 중이다. 하반기엔 최지우·황정음·정은지가 여배우 흥행에 동참한다.

최지우는 SBS 새 월화극 '유혹'에 출연한다. 최지우의 연기 변신이 기대되는 작품이다. '아름다운 날들'(2001), '겨울연가'(2002), '천국의 계단'(2003) 등 다수의 작품에서 가녀린 여성을 연기했다. '에어시티'(2007), '스타의 연인'(2008)을 통해 전문직 여성의 당당함을 표현하며 연기 폭을 넓혔다.

이번에 맡은 유세영 역은 후계자 수업을 받아 그룹을 이끄는 철의 여인이다. 사랑에 관심 없던 그는 홍콩 출장에서 우연히 차석훈(권상우)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녀의 삶은 변화한다. 작품은 네 남녀의 치명적인 사랑을 그린다. 아내가 있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캐릭터 설정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최지우를 마주하게 한다. 내달 14일 첫 방송.

SBS 주말극 '끝없는 사랑'의 황정음은 '믿고 보는 배우'라고 불릴 정도로 작품을 선택하는 안목이 탁월하다는 평이다. 지난해 KBS2 '비밀'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도 인정받았다.

그는 지난 16일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비밀'로 처음 연기 칭찬을 받았다"며 "스스로 즐거우면 작품도 잘 된다. 야생마 같은 여인 서인애를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각오를 전했다.

지난주 첫 방송된 '끝없는 사랑'에서 1970~80년대 군사정권 시절, 부당하게 희생된 가족과 연인을 향한 분노를 표현했다. 그의 눈물이 거대 권력 앞에 무릎 꿇어야 했던 서민을 대변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그룹 에이핑크 정은지는 KBS2 월화극 '트로트의 연인'에서 명품 연기돌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응답하라1997'(2012) 주연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검증된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가 낮았다.

그러나 작품은 신드롬을 일으켰고 정은지는 능청스러운 사투리 구사와 연기력으로 주목 받았다. 지난해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조인성·송혜교와 호흡을 맞췄고 전작에서 받은 평가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이번 작품에서는 트로트의 여왕으로 성장할 최춘희 역을 맡았다. 걸쭉한 사투리와 노래 실력이 캐릭터의 매력을 살린다. 이재상 PD는 "연기력과 매력, 노래 잘하는 사람을 원했다"며 "정은지 캐스팅은 100점"이라고 만족해 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TV 밖으로 나온 예능

'무한도전' '셰어하우스' 재미는 기본 부가활동

TV 안에 머물러 있는 예능은 이제 옛말이 됐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들은 TV 밖으로 나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으로 마니아를 거느리고 있는 MBC '무한도전'은 2014 브라질 월드컵 응원을 위해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무도' 출연진은 브라질로 떠나기 전 안무가에게 공식 응원 안무 '콕콕댄스'를 전수받고 공식 응원가를 만드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였던 러시아전이 열린 지난 18일엔 무도 멤버들이 광화문 거리 응원에 나서는 등 시청자와 가까운 곳에서 호흡했다.

'무한도전'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름 그대로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있다. 그 중 격년으로 열리는 '무도 가요제'에서 나온 음악들은 각종 온라인 음원 차트를 석권하며 큰 인기를 모았다.

올리브TV '셰어하우스'도 25일 출연진이 직접 부르고 제작한 '우리 같이 살아요' 음원을 공개했다. '우리 같이 살아요'는 '셰어하우스' 식구 중 한 명인 딕펑스의 김현우가 작사·작곡한 노래로 우정과 추억, 일상 속 행복을 그렸다. 또 g.o.d로 컴백한 손호영의 보컬, 룰라 이상민의 '크라잉 랩', 최희 아나운서의 야구 중계 내레이션 등 '셰어하우스' 식구 10명이 모두 참여했다. 음반제작 역시 출연진이 직접 플리마켓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만들어졌다.

SBS '심장이 뛴다'가 추진한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는 국회를 움직였다. '모세의 기적'은 긴급 출동한 소방차·구급차에게 길을 비켜주자는 캠페인이다. '심장이 뛴다'는 지난 4월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서울 시내 옥외 전광판에 공개하고 출연진이 직접 스티커를 나눠주는 등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 같은 노력으로 '모세의 기적'의 내용과 관련된 개정안이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이 지난 3월14일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범칙금을 높이고 긴급자동차를 긴급한 상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르면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뛴다'는 다음달 1일 종영을 앞두고 있다. 이에 시청자들은 "시청률 지상주의의 폐해"라며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김지민기자 langkim@

'무한도전' 브라질 월드컵 응원단 /MBC

올리브TV '셰어하우스' 음원 발매 '우리 같이 살아요' /CJ E&M

팔진미보다 맛있는 오뉴월 밴댕이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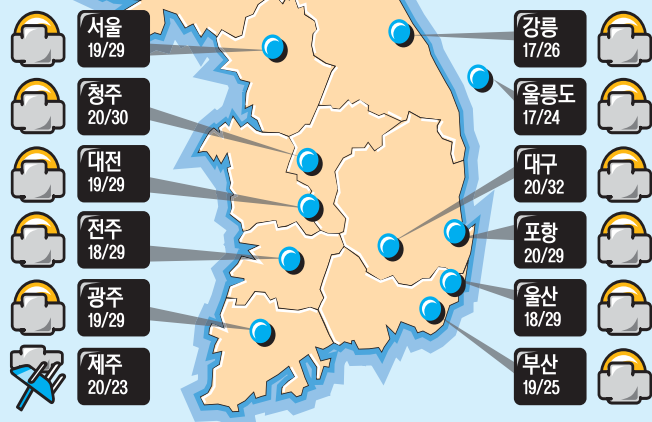
밴댕이가 고급 생선은 아니다. 이미지 역시 썩 곱지만은 않다.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하면 속 좁고 너그럽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요즘 밴댕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뉴월 밴댕이는 변변치 못하지만 때를 잘 만났다는 말로 평소에는 작고 볼품없는 생선이지만 오뉴월에 만큼은 산해진미보다도 맛있다는 소리다. 여기서 5~6월은 음력이니까 바로 요즘이 제철이다.

도대체 누가 밴댕이를 보고 산해진미보다 낫다는 소리를 했을까? 증보산림경제에 나오는 말로 오뉴월 밴댕이는 구이도 좋고 국을 끓여도 맛있지만 회로 먹으면 시어보다도 낫다고 했다. 시어는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여덟 가지 산해진미에 포함됐던 생선이다. 지금은 멸종 됐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할 정도로 맛있는 청어목 준치과에 속하는데 다 팔진미에 속했으니 맛이 기가 막혔을 것이다. 이런 시어보다 더 맛있는 것이 오뉴월 밴댕이라는 것이다.

얼마나 맛있기에 오뉴월 밴댕이라는 말이 생겼을까? 기본적으로 제철 밴댕이는 맛이 좋을 수밖에 없다. 살이 통통하게 오르기도 하지만 가을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 겨울철 찬바람에 입맛 돌게 만드는 과메기 재료인 청어와 함께 밴댕이도 청어목 청어과 물고기이니 일단 기름지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그러니 구우면 기름이 자르르 흐르고 회로 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는데다 깻잎과 양배추 송송 썰어 넣고 초고추장에 빨갛게 회 무침으로 먹으면 입안이 상큼해진다.

문제는 졸지에 밥도둑으로 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는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죽하면 "밴댕이 먹다 갓끈 떨어진다"라는 속담까지 생겼을까.

옛날 어떤 사람이 밴댕이구이의 맛을 표현하는데 "기름기 잘 잘 흐르는 밴댕이를 상추쌈에 올려놓고 쌈장 듬뿍 발라서 한입 크게 벌려서 입에 넣으면…"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선비가 따라서 입을 크게 벌렸다가 그만 갓끈이 끊어졌다는 것이다. 요즘 생선가게에 밴댕이가 많이 보인다. /음식문화평론가

다리를 꼬는 습관은 골반 불균형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등뼈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자세는 방광염 등을 악화시킬 수 있어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서울과 지방 일자리 선택 고민중 신중히 생각… 결혼은 2018년 결실

Q 아이싱 남자 80년 01월 21일 음력 묘시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이직이 고민입니다. 일자리 한 곳은 멀리가야 하며 4년 계약직 이지만 연봉을 대기업 과장급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서울에서 구한다면 중견기업 연봉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도 있고 해서 이시기에 이직도 고민이고 결혼도 고민이네요.
제주도에 계약직으로 4년 연봉 6500만원에 가는 것이고 서울에서 일자리는 4500만 원 선에서 구할 수 있는데 만약 멀리 간다면 시행 사를 가는 것인데 지금 설계하곤 다른 일이라 4년 후 다시 건축설계로 돌아 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가게 된다면 모은 돈으로 게스트 하우스나 다른 사업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연은 언제쯤 나타날까요.

A 아주성실하신 사주입니다. 논하기에 앞서 사주는 믿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을 얘기할 터이니 마음을 신중히 먹기 바라며 분석을 하는 것이니 만큼 좋다고 하여 좋아할 것도 없고 나쁘다고 하여 성내거나 낙담할 것도 아닙니다. '들판에 토끼'와 같은 성정으로 예민하고 순수하여 거짓이 없기에 타인의 말에 속기를 잘합니다. 명리 학에서 식신(食神:내가 생해 주는 오행. 일거리)은 자신의 먹을거리를 말하고 관성(官星:나를 극하는 오행)은 직장을 말 합니다.

다시말해본다면 관성의 미약함으로 분석하는 기운이 약하여 지금의 상황에서 다른 일을 하는 곳으로 간다면 현실적인 시행착오가 있게 됨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상하고 꼼꼼하므로 세밀함을 요하는 기능의 역할은 제격입니다. 2015년에 상반기 지나면서 변화의 기운이 오게 되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직을 다시생각하게 될 것이니 좀 더 신중하시면 어떨지요.

사주 지지(地支)에 묘목(卯木)이 삼지(三支)에 있기에 쉽게 말해서는 3개나 되어 자칫하면 이직하다가 세월보내기도 합니다. 현재 재물 운이 태지(胎地)와 절지(絶地)에 있어서 이제 막 일어나려다 단절되기도 하는 모습이 펼쳐진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런 시기에 원행을 한다면 기토탁임(己土濁壬:진흙이 맑은 물을 흐리게 함)하여 향기롭지 않은 이성으로 색정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니 2016년까지는 서울 중앙토(中央土)의 지역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주관을 확고하게 하여 실력과 경험을 더 키우십시오. 9월에 합을 이루어 인연은 만나겠으나2016년까지는 결혼이 불리하며 그 중에 2018년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2			9		
1		9						6
	3	8		5	9			4
2			8				7	
	8				2			3
5			6	8		4	3	
4						1		7
		3			1	2		

							7	5
3			6			2	8	
			8	3	1			
	1			2		4		3
8								2
6		7		4			9	
			1	8	4			
	8	1			5			6
2	7							

스도쿠 정답

7	5	4	2	3	6	9	1	8
1	2	9	4	7	8	3	5	6
6	3	8	1	5	9	7	2	4
2	4	5	8	9	3	6	7	1
3	6	7	5	1	4	8	9	2
9	8	1	7	6	2	5	4	3
5	1	2	6	8	7	4	3	9
4	9	6	3	2	5	1	8	7
8	7	3	9	4	1	2	6	5

1	6	8	4	9	2	3	7	5
3	9	4	6	5	7	2	8	1
7	5	2	8	3	1	6	4	9
5	1	9	7	2	8	4	6	3
8	4	3	9	1	6	7	5	2
6	2	7	5	4	3	1	9	8
9	3	6	1	8	4	5	2	7
4	8	1	2	7	5	9	3	6
2	7	5	3	6	9	8	1	4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신점[神占] 운세 6월 26일 (음 5월 29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반가운 소식이 날아든다. **60년생** 아랫사람에게 질책보단 칭찬을 많이 하라. **72년생** 상황이 어려워도 분수 지키면 어려움 없다. **84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고 야호~.

49년생 경사 있으나 마냥 기뻐만 할 수 없구나. **61년생** 생각도 못한 수입이 생긴다. **73년생** 매매와 투자는 시간을 두고 생각할 것. **85년생** 위기는 전화위복이 된다.

50년생 자숙모드가 이로운 날이다. **62년생** 어렵지만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 편안~. **74년생** 우물 안 개구리가 하늘을 보는 격이다. **86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미흡해 답답~.

51년생 계획한 일은 서서히 시동 걸어라. **63년생** 족쇄 풀린 말이 질주하는 격이다. **75년생** 일을 맡겼으면 일단 믿어보라. **87년생** 능력을 발휘해 주변서 다시 보게 된다.

52년생 사업자는 신용이 돈이다. **64년생** 큰일을 할 땐 사전에 의견 조율할 것. **76년생** 서두르면 위험요소 쌓인다. **88년생** 애정표현에 무감각한 연인이 답답~.

53년생 해묵은 고민이 사라져 야호~. **65년생** 몸 바쳐 일하는 후배가 든든하다. **77년생** 주변의 충고는 묵묵히 받아들여라. **89년생** 공들인 연인은 마음의 문 연다.

42년생 등 따시고 배부른 하루다. **54년생** 구직자는 눈높이 더 낮춰라. **66년생** 영업사원은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78년생**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

43년생 욕심 부려 걱정거리 만들지 말라. **55년생** 생각도 못한 곳서 이득이 생긴다. **67년생** 구설수 있으니 자기관리 신경 써라. **79년생** 모든 게 정상이라 자신감 넘친다.

44년생 생각 바꾸면 꼬인 일 풀린다. **56년생** 모든 일에 주역이 되려는 생각 버려라. **68년생** 생각이 짧으면 남 끌어들여 집안싸움 한다. **80년생** 동쪽서 희소식 기대하라.

45년생 어른으로서 존재감 보여주라. **57년생** 새로 추진한 일은 가속도 붙는다. **69년생** 무리한 성과는 후유증도 생각할 것. **81년생** 겸손하면 인기는 더 올라간다.

46년생 남쪽에 희소식이 있다. **58년생** 힘에 부치는 일은 미련 없이 내려놓아라. **70년생** 배우자와 충돌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 **82년생** 동료와 힘겨루기는 잘해야 본전~.

47년생 외출 땐 안전사고 조심~. **59년생** 못마땅해도 대세 따르면 무방하다. **71년생** 작은 것이 나가고 큰 것이 들어오는구나. **83년생** 욕심 부리면 어려움 자초한다.

metro worldcup

제 버릇 못 고친 수아레스 '이빨 본색'

상대 어깨 물어… FIFA 조사 징계 불가피

우루과이의 세계적인 골잡이 루이스 수아레스가 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엽기적인 만행으로 세계 축구 팬들을 경악시켰다.

수아레스는 25일 브라질 나타우의 두나스 경기장에서 열린 우루과이와 이탈리아의 조별리그 D조 3차전에 출전해 0-0이던 후반 35분 이탈리아 수비수 조르조 키엘리니의 왼쪽 어깨를 깨물었다. 공이 잠시 라인 밖으로 나간 사이 수아레스는 키엘리니에게 다가가 머리를 어깨 쪽으로 내밀었고 키엘리니는 고통스러워 하며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

키엘리니는 직접 어깨를 드러내 보였고, 수아레스 역시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처럼 입 주위를 감싸며 고통스러워했다. 심판은 이 순간을 보지 못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카메라의 느린 화면에 고스란히 잡히며 수아레스의 기행이 전 세계에 전파를 탔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소속인 수아레스는 지난해 4월 첼시와의 경기에서 상대 수비수 니슬라프 이바노비치의 팔을 무는 기행으로 화제를 모았다. 당시 심판이 이를 보지 못했지만 이후 1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2010년 네덜란드 아약스에 몸담고 있던 당시에도 PSV에인트호번의 오트만 바칼의 어깨를 물어 7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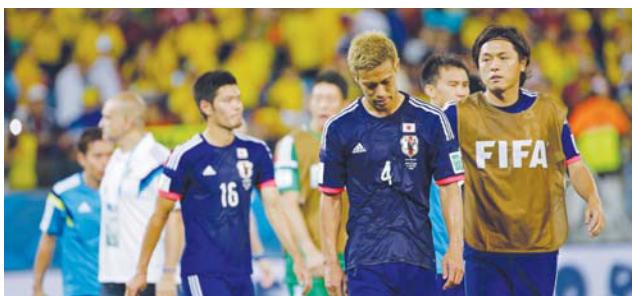
경기 후 수아레스의 태연한 핑계는 더 큰 비난을 불러모으고 있다. 그는 "경기 중에 흔히 있는 일"이라며 "키엘리니가 먼저 내 어깨를 밀쳤고 그래서 내 눈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멍이 든 것처럼 보이는 눈을 가리키며 상대 선수에게 책임을 돌렸다.

FIFA는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FIFA는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상대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이탈리아 대표팀의 마우로 타소티에게 A매치 8경기 출장정지의 중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 FIFA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수아레스는 남은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다.

수아레스는 연이은 '이빨 사건' 외에 4년 전 남아공 월드컵 8강 가나와의 경기에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에 손을 뻗어 막아내는 '핸드볼 사건'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2011년 10월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흑인 수비수 파트리스 에브라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해 8경기 출전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우루과이는 수아레스의 황당 플레이 직후 결승골을 넣어 1-0으로 승리했다. 이탈리아는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유순호기자 suno@

루이스 수아레스(오른쪽)가 이탈리아 수비수 조르조 키엘리니의 어깨를 깨문 뒤 자신이 피해를 당한 듯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일본선수들이 콜롬비아에 대패하고 힘 없이 그라운드를 빠져나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일본 마지막까지 망신살

콜롬비아에 1-4 완패… 무승 탈락

일본이 콜롬비아에 대패하며 초라한 성적으로 돌아가게 됐다.

일본은 25일 브라질 쿠이아바의 판타나우 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C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콜롬비아에 1-4로 완패했다. 이번 월드컵에서 4강을 목표로 내걸었던 일본은 1승도 거두지 못하고 브라질을 떠나게 됐다.

일본은 0-1로 뒤지던 전반 종료 직전 오카자키 신지가 헤딩슛을 터뜨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지만 후반에 무더기 골을 허용하며 잠깐의 희망은 날아가 버렸다.

일본의 간판 스타 혼다 게이스케는 경기 후 "4강, 우승까지 이야기해놓고 이런 비참한 결과를 얻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도 의미가 없는 패자다.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실망만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시아 출전국들이 조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는 등 부진을 보이고 있다. 2차전까지 일본과 같은 성적이었던 한국이 3차전에서 아시아 팀의 명예를 회복할 지 주목된다.

/유순호기자

먼길 온 손님들 줄줄이 짐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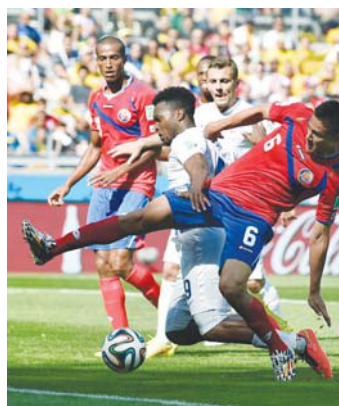
북중남미 '초강세'-유럽 '몰락'-아프리카·아시아 '최악'

2014 브라질 월드컵 16강 윤곽이 드러나면서 북중·남미의 초강세와 유럽의 몰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조별리그 8경기를 남겨둔 25일 남미 전통의 강호와 중남미의 신흥 강호들이 줄줄이 16강행 티켓을 손에 쥐었다. A조에서는 개최국 브라질이 이변 없이 조 1위를 결정지었고, 멕시코가 크로아티아와 카메룬 등 난적들을 물리치고 북중미 전통 강호의 위상을 지켰다. 멕시코는 브라질과 0-0 무승부를 거두는 위력을 보이며 골득실차에서 아쉽게 2위로 밀렸다.

지난 대회 우승팀 스페인의 충격 탈락으로 주목받은 B조에서는 칠레가 이변의 숨은 주역이 됐다. 칠레는 스페인을 잡는 위력을 보이며 네덜란드에 이어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절대 강자가 없던 C조에서는 콜롬비아가 전승을 거두는 독주 속에 그리스가 극적인 막판 승리로 유럽의 자존심을 챙겼다.

D조에서는 최약체로 평가받던 코스타리카가 우루과이를 3-1, 이탈리아를 1-0으로 따돌리는 이변을 연달아 일으키며 당당히 조 1위를 거머쥐었다. 결국 죽음의 조에서는 유럽 전통의 강호인 이탈리아와 잉글랜드가 코스타리카발 이변의 희생양이 됐다.

코스타리카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유럽의 강호 잉글랜드와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다. /AP 연합뉴스

E조의 에콰도르, F조의 아르헨티나, G조의 미국 등도 16강이 유력하다. 이번 대회에 나선 남미 6개팀은 모두 16강에 오를 게 확실하며, 4개의 북중미 팀 중에서는 탈락이 확정된 온두라스를 제외한 3팀이 16강에 나갈 전망이다. 아프리카 5개국, 아시아 4개국 역시 최악의 성적을 남겼다.

이 같은 미 대륙 팀들의 강세는 이동 거리가 짧고 시차와 기후 등 환경이 비슷해 선수들의 적응이 쉬웠다. 또 육로로 접근 가능한 자국 팬의 대대적인 응원을 받고 마치 홈 경기와 다름없는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프랑스의 디디에 데샹 감독은 "남미 선수들은 이곳 기후에 더 잘 적응할 것이고 아마도 고국 가까운 곳에서 경기하면서 수많은 응원단을 등에 업었다는 사실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 팀은 전력 차이가 거의 없고, 강호들에게도 쉬운 경기가 없다. 기후와 지리적 요소 등 미세한 균열이 이변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순호기자

‘벼랑끝’ 홍명보 박주영 카드 어쩌나

벨기에전 원톱 놓고 고심… 이근호·김신욱 선발도 만지작

벼랑끝 승부에 나선 홍명보 감독이 또다시 박주영(아스널)을 선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7일 오전 브라질 상파울루의 코린치앙스 경기장에서 벨기에와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H조 마지막 3차전을 치른다. 벼랑끝에 매달린 홍명보호로서는 더 물러설 수 없는 일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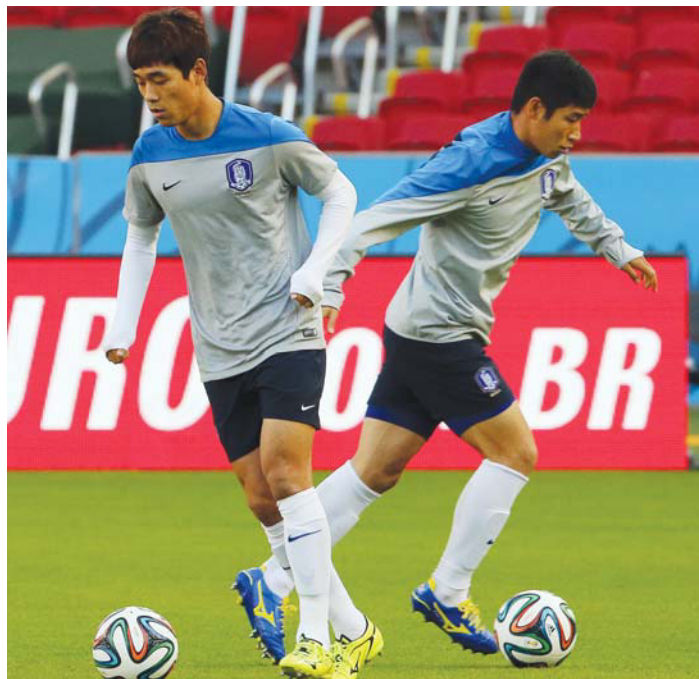
한국은 러시아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서 1-1 무승부를 거두며 선전을 펼쳤다. 반면 복병 알제리와의 경기서 전반전에만 3골을 허용하며 무너진 끝에 2-4 완패를 당하며 침통한 분위기로 돌변했다. 비기거나 지면 그대로 ‘끝’이다. 이겨도 ‘경우의 수’를 따진 뒤에야 16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다.

승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내던지는 플레이로 싸늘하게 돌아선 축구팬들의 마음을 돌리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홍 감독이 지난 러시아, 알제리전에서 가장 부진한 포지션으로 지목된 ‘원톱 스트라이커’ 자리에 누구를 세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두 경기 최전방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한 박주영이 중심에 있다. 그러나 그의 과거 활약을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나이지리아와의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프리킥 역전골을 터뜨려 한국의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이끌었고 2012 런던 올림픽 때는 일본과의 3~4위전에서 결승골을 넣었다.

하지만 그의 부진은 월드컵 본선 시작과 함께 더욱 깊어졌다. 러시아전과 알제리전에 선발 출전한 박주영의 두 경기 슈팅 수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상대 수비를 끌고 다니며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야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박주영과 교체된 선수들의 활약이 눈길을 끈다.

‘조커’ 역할을 부여받은 이근호는 러시아전에서 골맛을 보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알제리전에도 교체 출전해 구자철의 만회골을 어시스트, 두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벨기에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선발 원톱 스트라이커 후보로 꼽히는 박주영(왼쪽)과 이근호. /연합뉴스

또 장신 공격수 김신욱은 알제리전에서 박주영과 교체 투입돼 타점 높은 헤딩 패스로 한국 공격의 활로를 뚫었다. 구자철의 만회골도 김신욱의 헤딩 패스가 기점이었다.

홍명보호가 벨기에전서 어떤 인사전략을 쓸지 주목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탈락 스페인 귀국길 벼락 맞아

월드컵 이모저모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신 스페인 대표팀이 귀국길에서도 사고가 겹쳤다. 귀국행 비행기에 번개가 내리친 것이다.

‘유로 위클리 뉴스’는 25일 스페인 현지 언론을 인용해 “브라질 쿠리치바에서 출발한 스페인 대표팀의 이베리아 항공편 비행기가 스페인 라스팔마스를 거쳐 마드리드에 내린 순간 날개 부분이 벼락에 맞았다”고 전했다. 비행기에 번개가 내리치는 것은 그리 드문 사고는 아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 비행기에 탑승한 스페인 대표팀과 미디어 종사자는 전혀 인명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뜩이나 충격적인 탈락으로 자존심을 구긴 마당에 폭발하는 듯한 굉음을 들으며 고국 땅을 밟는 기분은 좋을 리 없다.

스페인 대표팀 /AP연합

◆코트디부아르 검은 완장 비밀

코트디부아르 선수들이 25일 브라질 포르탈레자 카스텔랑에서 열린 C조 조별리그 그리스와의 3차전에 검은 완장을 차고 경기장에 나섰다. 수비수 콜로 투레(리버풀)와 미드필더 야야 투레(맨체스터시티)의 동생이 사망한 것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투레 형제의 동생 이브라힘은 최근 영국 맨체스터에서 암 투병을 하다가 사망했다. 영국의 맨체스터 이브닝뉴스는 “이브라힘 투레가 영국 맨체스터의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인을 암으로 추정했다. 숨진 이브라힘은 최근까지 레바논 클럽팀 알 사파에서 뛴 축구 선수 출신이다. 그러나 프로 선수로 대성한 형들과 달리 크게 빛을 보진 못했다.

◆ 수아레스 핵이빨 효과 ‘대박’

‘악동’ 루이스 수아레스(리버풀)의 ‘핵이빨’ 사건으로 대박을 터뜨린 사람도 있었다.

25일 오전 1시 수아레스는 브라질 나타우의 에스타디오 다스 두나스에서 열린 이탈리아와 우루과이 경기에 선발 출전해 후반 34분 조르지오 키엘리니(유벤투스)의 어깨를 무는 기행을 저질렀다. 이에 한 노르웨이 사람이 이탈리아와 우루과이의 경기를 앞두고 ‘수아레스가 누군가를 깨물 것인가?’라는 항목에 32크로네(한화 약 5300원)를 걸었던 사실이 전해졌다. 이 항목의 배당률은 175배로 지극히 낮은 확률이었단 뜻이지만 수아레스는 일을 저질렀고, 베팅한 사람은 5600크로네(한화 약 93만원)를 받게 됐다. /양성운기자

16강 마지막 티켓 주인은…

월드컵 프리뷰

16강 티켓의 마지막 주인공이 가려진다. G조에서는 독일과 미국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 티켓 주인은 바뀔 수 있다. 한국이 속한 H조 역시 벨기에의 강세 속에 러시아·알제리·한국이 마지막 혼전을 벌인다.

◆ 포르투갈-가나(27일 1시·마네 가힌샤 국립 주경기장)

앞선 1·2차전에서 승점 1을 올리는 데 그친 두 팀은 패하면 끝이다. 승리하더라도 같은 시간 경기하는 독일과 미국이 비기면 별 수 없이 탈락이다. 역대 국제축구연맹(FIFA) 발롱도르 수상자는 그 해의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징크스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깰 수 있을지 관심사다.

◆ 미국-독일(27일 1시·페르남부쿠 경기장)

무승부를 거두면 함께 16강으로 가지만 패하는 팀은 이변의 제물이 될 수 있다. 독일이 객관적 전력에서 앞서지만 독일이 낳은 슈퍼 스타 위르겐 클린스만 미국 대표팀 감독의 존재는 독일에 부담이다.

◆ 한국-벨기에(27일 5시·코린치앙스 경기장)

한국은 가능한 한 많은 골을 넣어 이기고 알제리가 러시아전에서 비기거나 지기만을 빌어야 한다. 벨기에로서는 쉬어가는 경기가 되겠지만 한국 처지에서는 이번 대회의 명운이 걸린 한 판이다.

◆ 알제리-러시아(27일 5시·바이샤다 경기장)

알제리는 최종전에서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기면 자력으로 16강에 오른다. 러시아는 승점 1에 머무르는 팀치고는 경우의 수가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무조건 알제리를 꺾으면 된다.

/유순호기자 suno@

프로야구 전적 25일

■잠실

N C	020	100	000	3
L G	001	000	000	1

△승=이재학(7승 4패) △세=김진성(1승 2패 12세이브) △패=티포드(4승 3패) △홈런=모창민 10호(2회2점) 이호준 12호(4회1점·이상 NC)

■대전

롯데	000	004	023	9
한화	200	000	010	3

△승=유먼(9승 3패) △패=송창현(1승 7패) △홈런= 황재균 4호(9회3점·롯데)

■대구

넥센	020	000	010	3
삼성	605	020	10X	14

△ 승= 배영수(4승 3패) △ 패 = 금민철(3승 4패)△ 홈런 = 김민성 6호(2회2점·넥센) 윤석민 5호(8회1점·이상 넥센) 최형우 19호(7회1점·삼성)

■광주

S K	001	003	000	4
KIA	230	000	00X	5

△승 = 양현종(9승 4패) △세 = 어센시오(2승 15세이브) △패= 박민호(2패) △ 홈런 = 이재원 7호(3회1점) 정상호 5호(6회2점·이상 SK)